복음서와 사도행전

목차

매튜

제 1 장

1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의 족보.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에스롬을 낳고, 에스롬은 아람을 낳고,
4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
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
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7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았습니다.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고
8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지아스를 낳고,
9 오지아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
하스는 에스기야를 낳았고
10 그리고 에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11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니아와 그
의 형제들을 낳았다.
12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
을 낳고 스알디엘은 조로바벨을 낳고
13 스로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았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
았고, 맛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
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17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대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열네 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열네 대입
니다.
18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
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드러났으니라.
19 그런데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녀
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비밀리에 그녀를 내쫓
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
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
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 그러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
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24 그러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25 그녀가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녀를 알지 아니하
였으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2 장

1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
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뇨 우
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더라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4 그러고 나서 그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
었습니다.
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니 이는 선
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음이니라
6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관들 가운
데 가장 작지 아니하구나.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와
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7 그러자 헤롯은 박사들을 비밀리에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8 그리고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
다.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으면 나
에게 다시 알려 주어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여라.
9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동쪽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10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습니다.
11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였다. 그리
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
물로 바쳤다.
12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시자,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
다.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
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
집트로 피난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 할 것임이니라
14 그가 일어나서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
고 애굽으로 떠났다.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라 이
르시되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셨느니라
16 그러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그가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18 라마에서 애통과 울부짖음, 큰 애통함의 소리가 들
렸고 라헬이 자식들을 위하여 울며 위로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식이 없음이니라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꿈에 애굽에 있는 요
셉에게 나타나서
20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
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
었느니라 하니
21 그는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
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
대에서 통치한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로 가는 것을 두려
워하였다.그러나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갈
릴리 지방으로 돌아갔다.
23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았다. 이는 선지
자들로 말씀하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것이었다.

제 3 장

1 그 때에 세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
니라
2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라
3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
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그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를 두르고 있었으며,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습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주변 온 지방이 다
그에게로 나아갔으니
6 그들은 요르단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들의 죄
를 고백하였습니다.
7 그러나 그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의 세
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
의 세대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일러준
사람이 누구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9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고 생
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습
니다.
10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
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1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
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노라 그는 성령과 불
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깨끗이 하여 밀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버
릴 것입니다.
13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
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그를 말리며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다니요?" 하고 말
했습니다.
15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니라. 그러자 그는 그를 허락하셨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니라.
17 그러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 4 장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
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 예수께서 사십 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
셨습니다.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
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하니라
4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5 그러자 마귀가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
기에 세웠습니다.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
령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8 마귀는 또 그를 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엎드
려서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
니다."
10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사탄아, 물러
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한다."
11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났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12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
릴리로 떠나가셨다.
13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바다 연안에 있는 가버나움
에 이르러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즈불론과 납달리
지방 경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니,
15 즈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단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17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
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니라
18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
니다.
1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21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
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22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를 따라갔다.
23 예수께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
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
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24 그의 소문이 시리아 전역에 퍼졌다. 사람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정
신이상자, 마비 환자를 데려왔고 그는 그들을 고쳐 주
었다.
25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제 5 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니라
2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되,
3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
이요
4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임이요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
을 것임이요
6 의를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
를 얻을 것임이요.
7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받을 것
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
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1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
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느
니라.
13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고, 다만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길
수 없느니라.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뚝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
라.
16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
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
리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습니
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
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
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릴 것이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
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
리라
21 너희는 옛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
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으리라 한
것을 들었느니라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고 누구든
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위험이
있고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걸릴
위험이 있으리라.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거
기서 네 형제가 네게 원망하는 바를 기억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바치라.
25 네가 원수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그
렇지 않으면 원수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
이 너를 옥리에게 넘겨주어 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너희는 옛날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탐
내어 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
니라.
29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라 네 몸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네게 유익하고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유익하니라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에게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려라. 네 신체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31 또 이르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주
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까닭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마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33 또 너희는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너는 맹세를 어기
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네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
었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35 땅으로도 말라. 그것은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
문이다.
36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한 가닥의 머리카
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느니라
37 그러나 너희의 고백은 오직 그렇다, 그렇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보다 더하는 것은 악에서 나옴이니라.
38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함을 들었으
나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어
라.
40 만일 누구든지 너를 법정에 고소하여 너의 겉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41 누구든지 너에게 한 마일을 가라고 강요하거든, 그
사람과 두 마일을 함께 가거라.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
게는 거절하지 말라.
43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
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업신여기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45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
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
한 사람에게나 해를 돋우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
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느니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지 아니하냐?
47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 6 장

1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자선을 행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
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회당과 거
리에서 하는 것같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는 그
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3 그러나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 네 자선을 은밀하게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
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5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
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7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을 되뇌
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
니라.
8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
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
하옵소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나
이다. 아멘.
14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15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라.
16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
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17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
굴을 씻으라.
18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
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
다.
19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갉아먹으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치느니라
20 오직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 거기에서
는 좀이나 녹이 갉아먹지 못하며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으면 온 몸
이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23 그러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할 것이요,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한 주
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붙
잡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생명을 위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
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
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귀하지 아
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
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28 또 너희가 옷에 대하여 어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
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30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가마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
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
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을 아시느니라.
33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그
자체의 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
에 족하니라.

제 7 장

1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
을 것입니다.
2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
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너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4 네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끌을 빼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에, 보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말
할 수 있겠느냐?
5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러면
네가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
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두렵다.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니라
8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
람이 있겠느냐?
10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
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
은 선물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
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니라.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
는가?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
지느니라.
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
다.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
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당
신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
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때렸
으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26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
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때리
니,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났
습니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29 그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이 가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제 8 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
습니다.
2 그러자 나병환자 한 명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
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이르시되 내가 원
하노니 깨끗하라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느
니라.
4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
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라.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매 한 백부장이 나아
와 간구하여 이르되

6 이르되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
워하나이다.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
겠다.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
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이니이다.
9 나는 상관을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으
니,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
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10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어 따르
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시니라
1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
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요
12 그러나 그 나라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부짖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러자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
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15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났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
다.
16 저녁이 되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
고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
려 하심이니 이르되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
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하였느니라
18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저편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 그런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
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
니다."
2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21 또 그의 제자 중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해 주십
시오.
22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죽
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를 따랐다.
24 그런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도에 잠
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25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깨우며 이르되,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2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왜 두려워하느
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자 그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큰 고요함이 있었다.
27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28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
다.
29 그러자 그들은 소리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
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
까?"
30 그런데 그들에게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31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
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32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라, 돼지 떼
전체가 급히 가파른 곳으로 달려 바다로 들어가 물 속
에서 죽었습니다.
33 그들을 지키던 자들은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알렸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도 알
렸다.
34 그러자 온 성읍이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그
를 보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제 9 장

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자기의 고을로 들어가
시니라
2 그러자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있는 마비 환자 한 명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환자에게 이르셨다. " 아들아, 안심하라. 네 죄가 용서
받았다."
3 그러자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마
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마비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7 그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 그러나 무리는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9 예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
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
어나서 그를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보라, 많은 세
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
라.
11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
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
느냐?
12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
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13 그러나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14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합니까?
1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은 혼인잔치에 모인 아이들이 애통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16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이지 아니하나니, 낡은 옷을 채우려고 넣은 천이 오히려 옷을 찢어 더욱 심하게 하기 때문이라.
17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떨어지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둘 다 보존됩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어떤 관원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그녀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
20 그런데 12 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
21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의 옷만 만져도 나을 텐데." 하였기 때문입니다.
22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고 그녀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온전케 되었다.
23 예수께서 관원의 집에 들어가시어 악사들과 무리가 떠드는 것을 보시고
24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자리를 비우라. 그 하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25 그러나 사람들이 나가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고 그 하녀는 일어났다.
26 그리고 이 일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시매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라
28 그가 집에 들어가시니 눈먼 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이르되 네, 주님이시로다.
29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 "너희 믿음대로 되라."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여 이르셨다. "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31 그러나 그들이 떠난 뒤에 그의 소문을 그 지방 전역에 퍼뜨렸다.
32 그들이 나가자, 보라,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더라.
33 마귀가 쫓겨나자 벙어리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3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35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셨다.
36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37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38 그러므로 추수하시는 주인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 10 장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항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대오라는 별명을 가진 레배오가 있었습니다.
4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느니라.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보내시며 명령하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8 병자를 고치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9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도, 두 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갖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11 너희가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12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인사하라.
13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에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성읍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니라.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
둘기와 같이 순진하라.
17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의
회에 넘겨 줄 것이요, 그들의 회당에서 여러분을 채찍
질할 것입니다.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
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
니라.
19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시간에 너희에게 무
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21 또한 형이 형을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22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성읍으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
자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니지
못하리라.
24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
습니다.
25 제자가 주인과 같고 종이 주인과 같으면 족하니, 그
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붑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을 어찌 더 부르겠느냐?
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인 것이 드러
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밝
은 곳에서 말하며, 너희가 귀에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
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29 두 마리의 참새가 한 닢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
나 그 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져 있다.
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
보다 더 귀합니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
이요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
이다.
34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습니다.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고, 딸
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하게 하려고 함이니라.
36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
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니라.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이
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제자
의 이름으로 차가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
리라.

제 11 장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신 후, 그곳
을 떠나 그들의 고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니라.
2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고 자기 제자
둘을 보내니
3 그리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나요?"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전하라
5 눈먼 사람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
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6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
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
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
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
려고?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를 보려고 하였느니라.
10 이 사람은 바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얼굴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
하리라."는 말씀에 적힌 사람입니다.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지 아니하였
나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
라.
12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하
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습니다.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였느니라
14 만일 너희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는 오게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6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리요?그것은
마치 시장에 앉아서 동료들에게 외치는 아이들과 같으
니라.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
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곡하지 아니
하느니라
18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사람
들이 이르되, 저는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19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이르되, 보라, 탐식
하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
구라.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
심을 받느니라.
2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21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행해진 그 권능들을 티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과 재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23 너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졌거늘 너는 음부에
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해진 그 권능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
다.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
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지혜롭
고 명석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
게는 나타내셨음이니이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니이다.
27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으니, 아들
을 아는 자는 아버지뿐이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를 베
푸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
하고 겸손하니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제 12 장

1 그 무렵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
였다.
2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배고프
고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배고프게 되었을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으니,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
에게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느니라.
5 또 너희는 율법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서 안식일을 더럽혀도 죄가 없음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
냐?
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곳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7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나
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요,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그런데 보라,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에
게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하여 그를 고발하려 함이니라.
11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
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12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13 그러자 그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손을 내밀어라. 그
리고 그는 그것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과
같이 회복되었다.
14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를 멸할 방법을 놓
고 모의하였다.
15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가셨
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
을 모두 고쳐 주셨다.
16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
니다.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니,
18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 사랑
하는 자의 위에 내 영을 두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공의
를 보이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울부짖지도 아니하며, 거
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을 내려 승리하게 할 때까지 그렇
게 할 것이다.
21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22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셨으므로 눈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도 말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23 그러자 온 백성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
의 아들이 아니냐?"
2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
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의 왕 베엘제붑의 힘
으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각 나라가
서로 갈라지면 황폐하여질 것이요 각 성읍이나 집이 서
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리라
26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니 그
렇게 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27 내가 베엘제붑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
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29 그렇지 아니하면 강한 자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 그
의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을 것이니라.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
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리라.
32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라.
33 나무를 좋게 하면 그 열매도 좋아질 것이요, 나무를
나쁘게 하면 그 열매도 나쁘게 될 것이다. 나무는 그 열
매로 안다.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니라.
3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낳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낳는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
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요
37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라
38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답
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간음하
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40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있을 것입니
다.
41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요,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
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43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마른 곳을 두루 다
니며 쉴 곳을 찾으나 얻지 못하느니라.
44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
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45 그러자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쁘다. 이 악한 세대에게도 그러
하리라.
46 예수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
기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그와 이야기하고
자 하였습니다.
47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
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과 이
야기하고자 합니다.
48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
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49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
니다. "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구나!"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
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 13 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셨습
니다.
2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
라 앉으셨고 무리는 다 해안에 서 있었습니다.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4 그가 씨를 뿌리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치웠다.
5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
지 않아서 곧 돋아났습니다.
6 해가 뜨자 타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습니다.
7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돋
아나서 그 씨를 막았습니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
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0 제자들이 나아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
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
지 아니하였느니라.
12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누구든
지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
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
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5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그 귀는 듣는 데 둔하
며, 눈은 감았으니, 이는 언제든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까
두려움이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보는 것이 복이요, 너희 귀는 듣는
것이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
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
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
느니라.

18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는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20 그러나 돌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다.
21 그러나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버티
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막아
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요,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
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24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25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떠났다.
26 그러나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자 가라지도 보였
습니다.
27 그러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28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것을 했습니다.
종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
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까?
29 그러나 그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라지를 뽑
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하노라.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
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리라. 먼저 가라지를 모아서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
31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
었더니
32 이것은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
면 풀 가운데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33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하
늘나라는 마치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말
속에 숨겨 두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구나."
34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
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니
이르되 내가 비유로 입을 열고 세상 창조 이래로 감추
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였음이니라
36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
다.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
시오."
3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요, 가라
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39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거두
는 자들은 천사들이요.
40 그러므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같이 이 세
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는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다가
42 그들을 불 가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는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43 그러면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44 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기뻐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라
46 그는 매우 값진 진주 한 개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서 각종 짐승을 모아 모
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48 그물이 가득 차자 해변으로 끌어 올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나쁜 것은 내던졌습니다.
49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요 천사들이 나와서 의
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갈라내고
50 그들을 불 가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것이요
5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예, 주님이시여.
52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그러므
로 천국의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마치 자기 보고
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
나시니라.
54 예수께서 자기 나라에 돌아오시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
와 이런 권능은 어디서 났는가?
55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
리아라고 하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
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56 그리고 그의 자매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
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습니
까?
57 그들은 그에게 화를 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
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58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 거기
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14 장

1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
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에게서
큰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하니라
3 헤롯은 요한을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헤
로디아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4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
지 아니하니라.
5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6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자 헤로디아의 딸이 군중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 주었다.
7 그러자 그는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
다고 맹세하며 약속했습니다.
8 그러자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이렇
게 말했습니다. "요한 침례자의 머리를 그릇에 담아 주
세요."
9 왕은 고민했지만, 맹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위해 그
여자에게 그것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10 그리하여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11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져 그 소녀에게 주어졌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
사 지내고 예수께 가서 전하였다.
13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
나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14 예수께서 나가시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어 그들의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이곳
은 광야요 때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를 돌려보내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양식을 사먹게 하옵소서 하니라
16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그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
오."
17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빵 다
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니라.
18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
세요."
19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명령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
들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20 그들은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
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오천 명
이었다.
22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그는 무리를 돌려보
내셨습니다.
23 예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따
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예수께서
는 혼자 거기에 계셨습니다.
24 그러나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파도에 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25 밤 네 번째 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
게 가셨다.
26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
워하여 "이것은 영이다" 하고 말하며 무서워 소리쳤습
니다.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하니라
29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갔습니다.
30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자 그는 두려워하며 가라앉
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리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
오."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2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33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나아와 예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35 그 곳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자, 그들은 그 주변 온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사람들을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36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진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게 나
았습니다.

제 15 장

1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요? 그들
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
령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 그러나 너희는 이르노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
에게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라고 말하면,
6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하게 만들었다.
7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으
니 이르되
8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9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헛되
이 나를 경배하느니라.
10 그리고 그는 무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12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
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
께서 심지 아니하신 식물은 다 뽑힐 것이요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의 눈먼 인도
자이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15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
게 풀어 주옵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7 너희는 아직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
어가고, 허리로 빠져 나가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모독입니다.
20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것들이다. 씻지 않은 손으
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21 그러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22 그러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
수께 부르짖어 이르되, 다윗의 아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에게 심하게 괴로움을 받
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를 보내 주십시오. 그녀가 우리 뒤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24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
라 하시니라
25 그러자 그 여자가 나아와 예수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26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빼
앗아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27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참말입니다, 주님. 그
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
니다."
28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
음이 크도다. 네 뜻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딸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온전해졌다.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30 그러자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눈먼 사람과 벙어리와
불구자와 그 밖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그리하여 무리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
지고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놀
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2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
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이제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으되 먹을 것이 없느니라 저희가 길에서 지쳐 쓰러질
까 하여 굶은 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33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광야에
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큼의 빵
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 있노라 하니
35 그리고 그는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36 예수께서 빵 일곱 개와 생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
누어 주었습니다.
37 그들은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일곱 바구
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38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 명이
었다.
39 예수께서는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배를 타고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다.

제 16 장

1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청하였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날씨가 좋을 것이라 하거니와 하늘이
붉으니라 하느니라.
3 그리고 아침에, 오늘은 날씨가 나쁠 것입니다.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입니다. 오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
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들을 떠나 떠나셨느니라.
5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에는 빵
을 가져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7 그리고 그들은 서로 논쟁하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8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
은 자들아, 너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서로 논쟁
하는 것은 어찌함인가?
9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이 먹은 빵
다섯 개와 몇 바구니를 주워 모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
느냐?
10 사천 명에게 일곱 개의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 몇 바
구니나 주웠는가?
11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바리새
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느냐?
12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께서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
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신 줄
을 깨달았습니다.
13 예수께서 카이사리아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
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세례자 요
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그러면 너희는 나
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
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
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려 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
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
지 못하리라.
19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
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
도 예수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
습니다.
21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
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
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
르되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옵소
서.
23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
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넘어짐이로다. 네
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누구든
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
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니라.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
익이 있겠느냐?사람이 제 목숨을 대신하여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27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자가 자기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
음을 맛보지 아니할 사람들이 있다.

제 17 장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
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3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와 이야기를 나
누고 있었습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
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
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옵소서.
5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
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더라.
6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7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
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
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까지는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0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참으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거
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13 그제야 제자들은 그가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
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말하되
15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간질병
을 앓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종종 불 속에 빠지기도 하
고, 종종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16 그래서 내가 그 병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17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
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
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8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떠나갔고 그 아
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았습니다.
19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지 아니함이
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
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
으리라.
21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느니라.
22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
게 이르시되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갈 것이요
23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요, 그는 셋째 날에 다
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24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
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당신의 주인은 세를 내지 아니하
느냐
25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
수께서 그를 막으시며 이르시되,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조세를
받느냐? 자기 자식에게 받느냐,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받느냐?
26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낯선 자들에게서라 예수께
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자녀들은 자유하느니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네가 바
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라. 입을 열면 돈 한 조각을 찾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
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어라.

제 18 장

1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니이까
2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
고
3 그리고 말씀하셨다.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
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니라.
5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
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6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에 한 사
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
다 깊은 데 빠지는 편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7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범죄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범죄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
도다!
8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
든 그것을 잘라 내어 버리라. 불구가 되거나 절름발이
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
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
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나으니라.
10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
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은 하늘
에서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
니라.
11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
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
는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만일 그가 그것을 찾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그 양을 인하
여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니라
15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게 하리라.
17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
하라. 그러나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19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
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에 합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20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들 가운데 있느니라.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서 이르되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2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까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
라 하시니라.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왕이 자
기 종들과 계산을 하려고 하였느니라.
24 그가 계산을 시작하자마자 만 달란트 빚진 종 한 사
람이 끌려왔다.
25 그러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은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
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며 말했습니
다. "주인님,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27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풀어 주
고 빚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 하나를 만나, 그를 붙잡아 목을 잡으며 "빚진
것을 갚아라"고 말했습니다.
29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
여 이르되, 참아 주옵소서. 다 갚으리이다.
30 그러나 그는 듣지 않고 가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
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1 그러자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을 보고 매우 후회하
며 주인에게 와서 그 일을 다 전하였습니다.
32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나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다 용
서하여 주었노라.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
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의 주인은 노하여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서
그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괴롭혔다.
35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용
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행하시리
라.

제 19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2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곳에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3 바리새인들도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
되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
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
냐 태초에 그들을 만드신 이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5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
나 아내와 합하여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시니라
6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
므로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7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서를
써서 아내를 내쫓으라고 명령하였는가?
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내쫓는 것을 허락하였거니
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
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함이요,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0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남자가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11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다 받을 수 없나니 오직 받은 자만이 받을 것이니
라.
12 어떤 환관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어떤 환관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관이 되었고, 어떤
환관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환관이 된 자도 있
느니라.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니라.
13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
짖었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1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곳을 떠
나셨습니다.
16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
니까?"
17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왜 선
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곧 하나님뿐이
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느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
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
짓 증거하지 말라,
19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0 그 청년이 그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
부터 다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21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요, 와서 나를 따르라.
22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
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우
니라.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25 그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26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
는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니라
27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
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에게 무
엇이 유익하리이까
2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
좌에 앉을 새로운 세대에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
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30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제 20 장

1 하늘나라는 마치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
용하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2 그는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하
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3 그가 제삼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있는 것을 보고
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
가 옳은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가니라.
5 그는 여섯 시와 아홉 시쯤에도 나가서 마찬가지로 행
하였다.
6 열한 시쯤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온종일 놀고 왜 여기 서 있느냐?
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을
것이다.
8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사
람까지 삯을 주시오."
9 그리고 열한 시쯤에 일한 사람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
리온씩 받았습니다.
10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11 그들이 그것을 받고 나서 그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
르되
12 이르되 이 마지막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우리를 낮 동안 무거운 짐과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13 그러나 그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
구여 내가 네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소유를 가지고 가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너
와 마찬가지로 주겠다.

15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 눈이 악하냐?
16 그러므로 마지막이 첫째가 되고, 처음이 마지막이
되리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는 사
람은 적기 때문이니라.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열두 제자를 길
에서 따로 데리고 가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이
기로 정죄하리니
19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20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
고 예수께 와서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21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
니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내 두 아들이 당신의 왕국
에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
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2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
이 이르되 우리는 할 수 있나이다.
2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과
연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을 것이
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
이다."
24 그러자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대하여
분노하였다.
25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통
치자들이 백성을 주관하고 높은 자들이 백성에게 권세
를 행사함을 너희가 아느니라.
26 그러나 너희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느니라.
29 그들이 예리코를 떠나자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30 그런데 길가에 앉은 두 눈먼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
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1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다. 그들이 잠잠히 있
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 지
르며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
시오"라고 하였다.
32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
십시오.
34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
니 곧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은 예수를 따랐느니
라.

제 21 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니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묶인 나귀 한 마리와 새끼 나귀가 있는 것을 볼 것이
요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시니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면, "주께서 필요하
시다"고 말하라. 그러면 주께서 즉시 보내 주실 것이다.
4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였느니라.
5 시온의 딸에게 이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신다. 그
는 온유하며 나귀, 곧 나귀의 멍에를 타고 오신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7 그리고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옷을
얹고 그를 태웠다.
8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놓았고, 다
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짚을 깔았다.
9 앞서 가는 무리와 뒤 따르는 무리가 외쳐 가로되 다윗
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나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읍이 소동하여 이
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라
11 그러자 무리가 말하였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의 선지자 예수이십니다."
12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파
는 자와 사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
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13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기록된 바 '내 집
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
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4 그러자 눈먼 사람과 절름발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께 고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아이들이 외치며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16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
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17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이
르러 거기서 묵으셨다.
18 이튿날 아침 그가 성 안으로 돌아오니 배가 고프더
라.
19 그리고 길에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이르
셨으나,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만 있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 열매가 맺히
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시들어 버렸다.
20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얼
마나 빨리 말라 버리는가!"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
면 무화과나무에 행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옮
겨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22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
는 것은 모두 다 받을 것입니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가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네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리라
25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는가, 아
니면 사람에게서 왔는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는 우
리에게,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다."
26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
문입니다.
27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알 수 없노
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28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첫째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말했습니다.
29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겠나이
다. 그러나 후에 그는 회개하고 갔느니라.
30 그리고 그는 둘째에게 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는
대답하여, "저는 갑니다, 선생님."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31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있었느냐? 그들
이 그에게 이르되 첫째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
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나중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를 믿지 아
니하였느니라
33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십시오.어떤 집주인이 포도원
을 만들고 울타리로 둘러싼 다음, 그 안에 포도즙틀을
파고 망대를 쌓고 농부들에게 임대해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34 열매맺을 때가 가까워 오자 그는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열매를 받도록 하였다.
35 그러자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쳐죽였다.
36 주인은 또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그 종
들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였다.
37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
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38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
람이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39 그들은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습니
다.
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41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악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멸망시키고 그의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
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해줄 것입니다.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건축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의
행하심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
이다.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누
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비유를 듣고서 그
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46 그러나 그들이 예수에게 손을 대려고 하였을 때에
무리가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음이더라.

제 22 장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이 자기 아들
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었더라
3 그리고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사람
들에게 이르되,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나의 소와 살
진 짐승을 잡았으며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 잔
치에 오소서 하라 하니
5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각자의 길로 갔
으니, 한 사람은 자기 농장으로, 한 사람은 자기 상품으
로 갔다.
6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죽
였습니다.
7 그러나 왕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불태웠다.
8 그러자 그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 잔치는 준
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
잔치에 청하여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큰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나 만나는 대로 다 모았다. 그리하여 혼인 잔치에는 손
님들이 가득 찼다.
11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는 거기 혼인 예
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2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혼
인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13 그러자 왕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
을 묶어 끌고 가서 바깥 어둠에 내쫓아라. 거기서는 울
부짖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14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15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말로 얽어맬 방법
을 의논하였다.
16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시고 하나
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17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여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
냐?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
하지 아니한가?
18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나에게 조세금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
에게 한 푼을 가져왔습니다.
20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 이 형상과 글
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2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
사르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그를 떠나 갔습니다.
23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니
24 선생님, 모세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형
을 위해 후손을 일으켜야 합니다.'
25 그런데 우리와 함께 형제가 일곱 있었는데, 첫째는
아내를 맞이한 후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아내를 자기
형에게 남겨 두었고,
26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러하였느
니라.
27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 그러면 부활 때에 그녀는 일곱 사람 중에 누구의 아
내가 되리요?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음
이니라.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그릇 생각하였느
니라.
30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을 것
이요
31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
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33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3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침묵
하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35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36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
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라 하시니라
38 이것이 첫째되고 큰 계명입니다.
39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
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40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달려 있습니다.
41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
으셨다.
42 이르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
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
라 하더라.
4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영으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된 일이냐
44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45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 불렀은즉 어찌 그의
아들이냐?
46 그러자 아무도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
습니다.

제 23 장

1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2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든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들은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을 움직이려
고 하지 않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
한 것이요, 그들의 경문을 넓게 만들고, 그들의 옷자락
을 크게 하고,
6 또 잔치에서는 상석을 사랑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
리를 사랑하며
7 시장에서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랍비, 랍비라고 불리
기도 하였습니다.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
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10 또한 주인이라 불리지 말라 너희 주인은 오직 한 분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 그러나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
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13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위선적인 서기관들
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늘나라를 사람들 앞에 닫
아 버렸구나. 너희 스스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
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14 화가 있을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
들아! 너희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
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15 화가 있을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
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16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말하
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일도 아니

지만,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빚진 자라
하는도다!
17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18 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죄가 있느니라.
19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예물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20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
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라.
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
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라.
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
에 앉으신 이를 두고 맹세함이니라
23 화가 있도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커민의 십일조를 바치면서 율법
의 더 중요한 것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 이
것들만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24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
키는구나.
25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
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강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26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
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7 화가 있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흰 칠한 무덤과 같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
거늘 속으로는 위선과 불의가 가득하도다.
29 화가 있도다 위선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무덤을 장
식하고 있으니라.
30 또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시대에 있었더라
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
하였으리라 하니
31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느니라
3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33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
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34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
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니, 너희가 그 중 어떤 자
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 중 어떤 자들
을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핍박하리라.
35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이 세
대에게 임하리라.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견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병아리를 날
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기를 얼마나 자
주 원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요.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나니' 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
지 못하리라.

제 24 장

1 예수께서 나가 성전에서 떠나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성전 건물들을 보여 주려고 하였더라.
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
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그
에게 다가와서 이르되,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
습니까?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아무
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또 너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
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
어날 것이요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
다.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 환난을 받게 하고 너희
를 죽이리니,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10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넘어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
워할 것입니다.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
이요
12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
요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
어다)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피하라.
17 옥상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
오지 말라
18 밭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십
시오.
19 그 날에는 아이를 낳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0 그러나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
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그때에는 큰 환난이 있겠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23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
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도
미혹할 것입니다.
25 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26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밀실에 있
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
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29 그 날들의 환난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
늘의 권능들이 진동하리라
30 그때에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요,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해하며, 그들은 인자가 하
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
이요, 그들은 하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사방에서 그
의 택함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약하
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
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
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리라.
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 시대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나니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요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지
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
가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올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니라
43 그러나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어
느 시간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
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45 그러면 주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스려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세운 종은 충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겠
느냐?
46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리라.
48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되 주인이 오는 것
이 늦는구나 하거든
49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
시기 시작할 것이다.
50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생각지도 않은 날, 그가 알지 못
하는 시간에 올 것이요
51 그를 잘라내어 위선자들과 같은 몫을 받게 할 것이
요, 거기서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제 25 장

1 그 때에 천국은 열처녀에 비할 바가 되리니,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느니라.
2 그 가운데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3 어리석은 자들은 등잔은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가지
고 가지 아니하였고,
4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잔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다.
5 신랑이 더디 오는 사이에 그들은 모두 졸며 잠이 들었
습니다.
6 자정이 되자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맞으라."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
다.
8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기름을 좀 주오, 하니라.
9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럴 수 없
느니라. 그러면 너희와 우리에게 다 부족할 것이요. 오
히려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하니라.
10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했던 자들
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느니라.
11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12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날도 모르고, 그 시각
도 모르니, 인자가 올 것이다.
14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
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라.
15 그는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는 두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는
데,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한 후 곧 여행을 떠났
다.
16 그러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벌었다.
17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
의 돈을 숨겼습니다.
19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습니다.

20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또 다섯 달란
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제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 외에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니라
22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
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그 외에 두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라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니라
24 그러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
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시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
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25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26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
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느냐?
27 그러면 너는 내 돈을 환전업자에게 맡겨두었어야 했
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받았
을 것이다.
28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있는 자에게는 주어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30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십시
오. 거기서는 울부짖음과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
다.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또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요 그는 목자가 양
과 염소를 나누는 것같이 그들을 나누어서
33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야 한다.
34 그 때에 왕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세상 창조 이래 너희
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울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낯선 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느니라.
37 그러면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
리가 언제 주님이 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
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당신이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39 언제 우리가 당신이 병드시거나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40 그러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41 그 때에 왕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
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라 이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니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울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43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
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
라.
44 그러면 그들도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
가 언제 주님이 주리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신 것
을 보고, 갇히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
리이다.
45 그러면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46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
명에 들어갈 것이다.

제 26 장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
시되
2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요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 나갈 것이니라
3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궁전으로 모였다.
4 그리고 예수를 교활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였
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6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그러자 한 여자가 매우 귀중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
지고 와서 예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8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말하였
다. "이런 낭비는 무슨 목적인가?"
9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10 예수께서 이를 깨달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 어찌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선한 일
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
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
한 것입니다.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
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여 전
하리라.
14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에게 가서

15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당신들에
게 넘겨주면, 당신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
고 그들은 은화 삼십 개를 주고 그와 언약했습니다.
16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배반할 기회를 노렸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르되 유
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성 안으로 가서 그런
사람에게 이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셨다."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20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
다.
21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니라.
22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각자가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입니까?"
23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
에 손을 넣는 자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요.
24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니라.
25 그러자 그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
님, 저입니까? 그가 이르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모두 이 잔을 마셔
라.
28 이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
의 내 피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이
제부터는 이 포도나무 열매의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
하리라.
30 그리고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나갔습니다.
31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
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
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비록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하여 화를 낼지라도 나는 결코 화를 내지 아니하겠나
이다.
34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
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
리라.
35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 할
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
와 같이 말하니라.
36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
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37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
리고 가시면서 근심하고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 영혼이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39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
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나
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42 예수께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
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니라
43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눈이 무거워서였더라.
44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시고 다시 가서
세 번째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5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
이제 좀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왔고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팔려간다."
46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47 그가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
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48 예수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징을 주어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 그를 꼭 붙잡으라 하
니라
49 그는 곧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인사하고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엇 때문
에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그를
잡았다.
51 그러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
습니다.
52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칼을 다시 칼
집에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53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 지금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54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
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도적같이 나와서 나를 잡으려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너희와 함께 가르치고 있었으나 너
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느니라.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그러자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7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그 끝을 보려고 하였다.
59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찾았다.
60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에 거짓 증인 두 명이 왔으니,
61 또 이르되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노라 하니라
62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65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증인을 더 필요로 하리요? 보라, 이제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느니라.
66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67 그러자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때리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68 이르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는 누구냐?
69 그때에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70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노라 하니라
71 그가 현관으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72 그러자 그는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73 얼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분명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군요. 당신의 말이 당신을 드러냅니다."
74 그러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즉시 울었습니다.
75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고 나가서 몹시 울었다.

제 27 장

1 아침이 되매 백성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2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뒤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다.
3 그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가 정죄받은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은 삼십 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왔다.
4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배반하여 죄를 지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알아라.
5 그는 은화를 성전에 던져 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6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은전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값이기 때문에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7 그들은 의논한 끝에, 나그네들을 묻을 땅으로 도예가의 밭을 샀다.
8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날까지도 '피밭'이라 부르느니라.
9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평가한 자의 값인 은 삼십 개를 가지고 가서"
10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들을 도예가의 밭에 주었습니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에게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노라.
12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였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3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저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증거를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매우 놀랐습니다.
15 그런데 그 절기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16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를 가졌습니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인가?
18 그는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넘겨준 줄을 알았더라.
19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나이다.
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였다.
21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둘 중에 누구를 내가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라.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요?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23 그러자 총독이 말하였다. "어머, 무슨 악한 짓을 했
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히
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24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 것도 이길 수 없고 도리어 폭
동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
여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하니라
25 그러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
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26 그러자 그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27 그러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대강당으로 끌고 들
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28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진홍색 옷을 입혔
습니다.
29 그리고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
쳤다.
30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
를 쳤다.
31 그들은 예수를 조롱한 후에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강요하였다.
33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
르니
34 그들은 쓸개즙을 타서 예수께 마시라고 드렸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옷자락을 놓고 제비
를 뽑았습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
습니다.
36 그들은 앉아서 그를 지켜보았다.
37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
는 죄목을 써서 붙였습니다.
38 그때에 두 도둑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못 박혔습니다.
39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하니
40 그리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서 내려오라.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42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
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입니다.
43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면 지금 구원하시리라.그가 말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44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도 그것을 그의
이에 던졌더라.
45 여섯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세 시까
지 계속되었습니다.
46 제 구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47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
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였다.
48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
다가 식초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49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할지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영혼이 떠나
시니라.
51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
졌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52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
습니다.
53 그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 사
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55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56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
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도 있었습
니다.
57 저녁이 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왔는
데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다.
58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시체를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59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그는 바위에 파 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시신을 뉘이
고, 무덤 문에 큰 돌을 굴려 놓고 떠났다.
61 그리고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
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62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63 이르되 선생님,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
하노라 하니라
64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가
고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
지도 모르니 그 무덤을 사흘째까지 단단히 지키라고 명
령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오류가 처음 오류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경비병
이 있으니 가서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하여라."
66 그리하여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굳건히 지켰다.

제 28 장

1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첫날이 밝아오자 막달라 마리
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2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
에서 내려와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3 그의 얼굴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고
4 그러자 경비병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과 같이 되었습니다.
5 그러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워
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6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
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
다고 전하여라. 보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니, 보라, 내가 너희에
게 말하였노라.
8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빨리
떠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려고 달려갔습
니다.
9 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을 때, 보라, 예
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했다.
10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두려워하
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11 그들이 가는 동안에, 보라,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행해진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
고하였다.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훔쳐 갔다고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리면 우리가 그를 설득
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15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였습
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6 그 뒤에 열한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정해
주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7 그들은 그를 보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
하였다.
18 예수께서 나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
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느니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
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
리라. 아멘.

마가복음

제 1 장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2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
하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주의 길을 예비
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4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5 그러자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
와 모두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들의 죄
를 고백하였습니다.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7 그리고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강한 이가 나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
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9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
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0 곧 물에서 올라오시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니
11 그러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2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곧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13 예수께서 광야에 사십 일 동안 계셨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
이 그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14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사 하
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
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16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
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18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19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
셨다.
20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
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예수를 따
라갔다.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곧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느니라.
22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권위
있는 자로서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는 달랐기 때문이
다.
23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소리지르며 말했습니다.
24 이르시되,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
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
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
룩한 자이십니다.
25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 "잠
잠히 있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26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찢고 큰 소리를 지르
자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27 그러자 그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새로운 교훈인가? 그는 권위 있게 더
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도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28 그러자 그의 소문이 갈릴리 주변 온 지방에 곧 퍼져
나갔습니다.
29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다.
30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더라. 그러
자 사람들이 시몬에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31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
키시니 곧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시중을
들더라.
32 저녁때가 되어 해가 지자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다.
33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
34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
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귀
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들
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35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6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37 그들이 그를 만나자 이르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
나이다 하니라
3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39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40 그런데 나병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며
무릎을 꿇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라 하시니라
42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곧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43 그러자 그는 그에게 엄격하게 명령하고 곧 그를 돌
려보냈다.
44 그리고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증거하
십시오."
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일을 널
리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성에 들어가실 수 없어서 바깥의 황무지에 계셨다. 그
러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찾아왔다.

제 2 장

1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
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더라.
2 그러자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맞을 자리
가 없었고, 문 곁에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3 그들은 마비 환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갔는데,
그 사람은 네 사람에게서 운반되어 왔다.
4 군중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걷어낸
뒤 중풍병자가 누워 있던 침대를 내려 놓았습니다.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말
씀하셨다. "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6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서기관 중에 어떤 자들이 있
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추리하니
7 이 사람이 이처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찌함인
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8 예수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을
곧 영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
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9 마비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마비로 병든 사람
에게 이르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
로 가라.
12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그들 모두
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놀라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3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니 무리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가 지나가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 하니, 일
어나 그를 따랐더라.
15 예수께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
와 죄인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
들은 매우 많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16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들
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
게 이르되 저 사람이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니라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
하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
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곤 하였다. 그
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
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
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아이들이 신랑
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요.
21 또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꿰매지 아니하나
니 그렇지 아니하면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빼앗아 찢
어짐이 더 심하리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나니 그렇
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도 쏟아
지고 부대도 망가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새 포도
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
들이 가면서 밀 이삭을 따기 시작하였다.
24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그
들은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2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다윗이 궁
핍하고 배고프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었을 때에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26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빵을 먹었고 또 자기
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8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느니라.

제 3 장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2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분을 고발하려고 했기 때
문입니다.
3 그리고 그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 일어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당
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죽이
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5 그리고 그는 분노로 그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슬퍼하며 그 사람에게 " 네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6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곧 헤롯 당원들과 협의
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7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와 유대에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더라
8 예루살렘과 이두매아와 요단 건너편에서, 그리고 티
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그에게 왔습니다.
9 그리고 예수께서는 군중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대기시켜서 그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들었다.
11 또 더러운 영들도 그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 질
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2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나아왔느니라.
14 그리고 그는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요 또한 그들을 보내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또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려 하심이요
16 그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고,
17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도 있었는데, 그는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즉,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18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19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습니
다. 그들은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0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서 빵도 먹을 수 없게 되었
다.
21 그의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나
갔다. 그들이 말했듯이 "그는 정신이 나갔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는 베엘
제붑을 지녔으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만일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와 갈라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느니라.
25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 있을 수
없느니라.
26 만일 사탄이 스스로 일어나 분열되면 그는 설 수 없
고 오히려 멸망할 것입니다.
27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물건을 약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집을 약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들의 모든 죄
와 그들이 모독하는 모든 모독은 용서받을 것이요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
고 도리어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30 이는 그들이 "그가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
였기 때문이다.
31 그러자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사
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32 그러자 무리가 그의 주위에 앉아 그에게 말하였다. "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
고 있습니다."
33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누가 내 어
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34 그리고 그는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제 4 장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셨고 무리는 다 바닷가 땅에 있었더라.
2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며 교
훈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으니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
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치워 버렸다.
5 또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
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아났습니다.
6 그러나 해가 뜨자 타 버렸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
렸습니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
라서 그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8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삼십 개, 어떤 것은 육십 개,
어떤 것은 백 개가 열렸습니다.
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귀 있는 자
는 들으라."
10 그리고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비유를 물었습니다.
1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하나님 나
라의 신비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
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비유로 이루어진다.
12 이는 그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이는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5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이러하니라. 곧 말씀이 뿌려
진 곳이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16 또한 돌밭에 뿌려진 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말씀
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17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
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18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은 이러하니 곧 말씀을 듣고
도
19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속임수와 기타 여러 가지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20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런 사람들이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21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촛불을 가져오
는 것은 말뚝 아래에 두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침대 아
래에 두기 위한 것이냐? 촛대 위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
냐?"

22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23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2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듣
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재로 너희에게 재어
질 것이요, 너희가 듣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실 것이다."
25 가진 자는 받을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
리는 것과 같으니라
27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씨가 돋아나서 자라는 것
을 그는 알지 못한다.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힙니다.
29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곧 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할꼬 무슨 비유로 비교할꼬
31 그것은 땅에 심어질 때 땅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작
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32 그러나 심어지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
고 큰 가지를 뻗으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다.
33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
34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
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혼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제자
들에게 풀어 설명하셨느니라.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저편으로 건너가자."
36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그들은 그가 배 안에 있는
그대로 그를 데려갔고, 그와 함께 다른 작은 배들도 있
었습니다.
37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에 덮쳐와서 배
가 가득 찼습니다.
38 예수께서는 배의 뒤쪽에서 베개에 누워 주무시고 계
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39 그리고 그는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에게 말씀
하셨다 . "고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큰 고요함이 있었다.
40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왜 그렇게 두려
워합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41 그러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
는가?"

제 5 장

1 그들은 바다 건너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습
니다.
2 그가 배에서 나오시매 곧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그를 만나니
3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였으므로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으며,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느니라.
4 그는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그 쇠사슬
은 그에 의해 끊어지고 족쇄는 산산이 부서졌으므로 아
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5 그는 밤낮으로 산에 있고 무덤에 있으며,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6 그러나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서 경배하며
7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
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
나님께 맹세하노니,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노
라.
8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영아, 그 사람
에게서 나가라 하시니라.
9 그리고 그는 그에게 "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
다 .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우리
는 많기 때문입니다."
10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
라고 간청했습니다.
11 그런데 산 근처에는 먹이를 먹고 있는 큰 돼지 떼가
있었습니다.
12 그러자 모든 귀신이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
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13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허락하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무리는 급
히 가파른 곳으로 달려 바다로 들어갔다. (그 무리는 약
이천 마리였다.) 그리고 바다에서 질식했다.
14 돼지를 먹이던 자들은 도망하여 성읍과 시골에 그것
을 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갔다.
15 그들은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군대를 거느
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16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귀에게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
습니다.
17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자기들의 영토에서 떠나시기
를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매 마귀 들렸던 자가 예수께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니라.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
셨는지 전하여라."
20 그러고 나서 그는 떠나서 데가폴리스에 예수께서 자
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파하기 시
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랐더라.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니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였고 예수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시
더라.
22 그러자 회당장 중의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23 그리고 그는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이르되, 내 어
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어 주
셔서 그녀가 나을 것이요, 그녀는 살 것입니다.

24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
와서 그에게로 몰려들더라.
25 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
데,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모든 소유물을
다 써버렸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었
습니다.
27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
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나
을 것이요" 하였음이니라.
29 그러자 그녀의 피의 근원이 곧 마르고 그녀는 자기
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30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알고 무리 가운데서 그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31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리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나를
만졌는지 물으십니까?"
32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행한 여자가 누구인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33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
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에게 전하
였습니다.
3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네 믿
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깨끗
이 나을 것이다."
35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
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6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라
37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
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8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소란스러
운 광경과 사람들이 크게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셨습니
다.
39 그가 들어가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
다 하느니라.
40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모두 내
쫓은 후에, 그는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와 함
께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41 그리고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
리다 꾸미라 하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왜냐하면 그녀
의 나이가 열두 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큰
놀라움으로 놀랐다.
43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
격히 명령하고 그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습
니다.

제 6 장

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자기 나라로 오시니 제자들
도 그를 따랐느니라.
2 안식일이 되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
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
서 이런 일을 얻었는가 이 사람에게 무슨 지혜가 주어
졌기에 그 손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는가 하더라
3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
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들이 그에게 화를 냈더라.
4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존경
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이라.
5 예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셔
서, 병자 몇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입니다.
6 그리고 그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리고 그는 마을들을 돌며 가르치셨습니다.
7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
며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8 그리고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배낭이나 빵이나
지갑에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 다만 샌들을 신어야 하며, 두 벌의 옷을 입지 마십시
오.
10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11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 밑의 먼지
를 털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
12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
다.
13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습니다.
14 헤롯 왕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
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에게서 놀
라운 일들이 나타난다."
15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
들은 그가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
니다.
16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하
니라
17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
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18 요한이 헤롯에게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
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19 그러므로 헤로디아는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
였으나 못하였다.

20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
워하여 그를 보호하였으며, 그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그의 말을 들었더라.
21 그런데 마침 좋은 날이 되어 헤롯은 자기 생일에 대
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을 초대하여 만찬
을 베풀었다.
22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
게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해 보아라. 내가 주
겠다"고 말하였다.
23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당신이 나에
게 무엇을 구하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24 그리고 그녀는 나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내가 무
엇을 요구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
25 그러자 그 여인은 급히 왕에게 가서 청하였습니다. "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그릇에 담아서 빨리 저에게 주십
시오."
26 왕은 몹시 괴로워했지만, 자기가 한 맹세와 함께 앉
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여자를 거절할 수 없었다.
27 왕은 곧 사형 집행자를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
라고 명령하였고, 사형 집행자는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었다.
28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그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거
두어 무덤에 안치하였다.
30 사도들은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3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따
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
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32 그들은 배를 타고 조용히 황무지로 떠났다.
33 그리고 군중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이 그를 알고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앞지르고 함께 그에게로 왔습니다.
34 예수께서 나오시어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35 날이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광야요 때도 이미 많이 지났나이다
36 그들을 돌려보내어 주변 촌락과 마을로 가서 스스로
빵을 사먹게 하십시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37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어
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38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
냐 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았을 때에 다섯 개와 물
고기 두 마리라 하더라.
39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무리 지어 푸른
풀밭에 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0 그들은 백 명씩, 오십 명씩 대열을 지어 앉았다.
4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
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들 앞에 놓게 하셨으며, 물고기 두 마리도 그들에게 나
누어 주셨습니다.
42 그들은 모두 먹고 배불렀습니다.
43 그리고 그들은 조각들과 물고기를 가득 담은 열두
바구니를 모았습니다.
44 그리고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약 오천 명이었습니
다.
45 그리고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올라
타서 먼저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신 뒤에, 무리를 돌
려보내셨다.
46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들어가셨다.
47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만 땅
에 있었습니다.
48 예수께서 그들이 노를 저으며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그들을 거슬러 불었기 때문이다. 밤 네 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49 그러나 그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그것
이 영이라고 생각하여 소리쳤습니다.
50 이는 그들이 다 그를 보고 놀라서 곧 그들에게 말씀
하시며 이르시되 기뻐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51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그러자 제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서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
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53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안에 이르
렀다.
54 그들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곧 그를 알아보니
55 그리고 그 지방 전체를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
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을 침대에 눕힌 채 운반하기
시작하였다.
56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마을이든 도시이든 시
골이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거리에 내려놓고, 그의 옷자
락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를 만진 사람은 누구나 나았습니다.

제 7 장

1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어떤 서기관
들이 예수께 모였습니다.
2 그런데 그들은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을 비
난하였다.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자주 씻지 않고
는 먹지 아니하니 이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음이니라
4 그들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
하느니라. 또 그들이 간직하도록 받은 다른 많은 것들
이 있으니, 예를 들면 잔과 항아리와 놋그릇과 상을 씻
는 것이라.
5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
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
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였느니라
7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니 헛되
이 나를 경배하느니라.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
느니라. 곧 항아리와 잔을 씻는 것과 그 밖에도 이와 비
슷한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하나
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10 모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11 그러나 너희는 이르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
버지나 어머니에게 '그것은 코르반, 곧 예물입니다' 하
고 말하고, 내가 당신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
엇이든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한다.
12 그리고 너희는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13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느니라
14 그가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이르되 너희 각자는 나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
을 더럽히지 못하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17 예수께서 군중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매 제자
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물으니
1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깨닫
지 못하느냐?
19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숨
으로 나가서 모든 음식을 정화함이니라.
20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 사람의 마음에서 곧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22 도둑질, 탐욕, 사악함, 사기, 음탕함, 악한 눈, 모독,
교만, 어리석음.
23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
힙니다.
24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들
어가시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으셨다.
25 어떤 여자가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시로페니키아 족속이더
라. 이 여자는 예수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27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
들을 배불리 먹게 하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러하옵
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은 아이들이 남긴 부스
러기를 먹나이다.
29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 이 말
은 그만하고, 가거라. 마귀는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녀가 집에 도착하니, 마귀는 나가고 그녀의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1 그리고 다시 티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데카폴리스
지방의 지경을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습니다.
32 그들은 귀머거리와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
께 와서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니,
34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한숨을 쉬시
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곧 "열려라."는 뜻이다.
35 그러자 그의 귀가 곧 열리고 혀의 묶인 것이 풀려 그
는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36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
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령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욱더 널리 알렸습니다.
37 그리고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그는 모든 것을 잘 해
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제 8 장

1 그 때에 무리가 매우 많아 먹을 것이 없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나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지
낸 지 벌써 사흘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
문이다.
3 내가 그들을 굶주린 채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
에서 기진할 것이니,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도 있었
느니라.
4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광야
에서 사람이 어디서 빵으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5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몇 개의 빵
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곱 개입니
다.
6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빵 일곱 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놓았습니다.
7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예수께
서는 축복하시고 그것도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셨
다.
8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깨진 고기를 일
곱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9 먹은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다. 그는 그들을 돌려보냈
다.
10 곧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
방으로 가셨다.

11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질문하며 하늘
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를 시험하였다.
12 그리고 그는 그의 영으로 깊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
셨습니다. "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13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떠나셨습니다.
14 그런데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그들
과 함께 배에 탄 빵도 한 개뿐이었다.
15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 "바리새
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16 그리고 그들은 서로 논쟁하여 말했습니다. "우리에
게 빵이 없기 때문이군요."
17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떡
이 없다고 어찌하여 따지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
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졌느냐
1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
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오천 명에게 다섯 개의 빵을 떼어 주었을 때, 너
희는 몇 바구니의 조각을 모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
르되, 열두 바구니라.
20 그리고 사천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있을 때,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몇 개나 주워 올렸는가? 그들이 말했
으니, 일곱 개입니다.
21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왜 깨닫지 못합
니까?"
22 예수께서 벳새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만져 달라고 간청하니라.
23 그리고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
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
으시고 손을 얹으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
니다.
24 그리고 그는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처
럼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25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얹고 올려다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똑
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26 그리고 그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
마을로 가지 말고, 마을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레아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 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
다. "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 하였으
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
한 분이라 하더라.
29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
씀하셨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0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곧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
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32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붙잡고 그를 꾸짖기 시작했다.
33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
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
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
하는도다 하시니라
34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이르시
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입니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
익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제 목숨을 대신하여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므로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
리라.

제 9 장

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진실로 너
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2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
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3 그러자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땅위의
어떤 세탁하는 사람도 그것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습니
다. 그들은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여
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
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
리야를 위하여 하옵소서.
6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7 그러자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
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
을 들으라 하니라
8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예수와
그들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
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죽음에서 부활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물었습니다.
11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
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2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
야가 진실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나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참으로 왔
거늘 그들이 기록된 대로 그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느니
라
1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무리가 크게 모여 있
고, 서기관들도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더라.
15 그러자 온 백성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 달려가서 인
사하였다.
16 그리고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다. " 너희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17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
생님, 저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나이다.
18 그리고 그가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는 그를 찢
어발기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쇠약해집니다. 그
래서 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를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19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
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20 그들이 그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그가 그를 보자마
자 귀신이 즉시 그에게 화를 내며 땅에 쓰러져 거품을
토하며 뒹굴었다.
21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 이게 그
에게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어
린 시절의 일입니다."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과 물 속에도 던졌습
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하니라.
24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소리를 지르며 눈물
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25 예수께서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벙어리요 귀머거리인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다시는 그 아이에
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6 그러자 귀신이 소리치며 그를 몹시 찢고 나갔다. 그
러자 그는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27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다.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
까?"
2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런 종류
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 없
습니다.
30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갔는데, 예수께서
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31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인자는 사
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요 죽은 후에 사
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32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에게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33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면서 제자들
에게 물으셨다. " 길에서 너희가 서로 논쟁한 것은 무엇
이었느냐?"
34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에서 그들
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35 그리고 예수께서 앉으시어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
되,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
의 마지막이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36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니라.
38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어떤 사람
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노라 하니라
39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그에게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41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
어 마시게 하면, 곧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
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라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그에게 유익할 것이다.
43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나으니라.
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네
게 나으니라.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
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나으니라.
48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을 뿌려 받을 것이요, 모든 제
사도 소금을 뿌려 받을 것이니라.

50 소금은 좋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는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평을 누리라.

제 10 장

1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단 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고, 군중이 다시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쳤다.
2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남자가 아내를 내쫓는 것이 합당합니까?"하고 시험하며 물었다.
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 모세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4 그들이 말하였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를 내쫓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이 계명을 기록하였느니라.
6 그러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7 이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질 것이요
8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리라.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10 그리고 집에서 그의 제자들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1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12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니라
13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께서 그들을 만져 주시기를 바랐으나, 그분의 제자들은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16 그리고 그는 그들을 팔에 안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7 예수께서 길로 나가시자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18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곧 하나님뿐이니라
19 너는 계명을 아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0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21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셨다. " 네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2 그는 이 말씀에 근심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
24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아이들아, 부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26 그러자 그들은 몹시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27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니라
28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자는 없느니라
30 그러나 그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백 배나 받을 것이요, 박해도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31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될 것이 많으니라.
32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니 그들이 놀랐고 그들이 따라가면서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니
33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사형에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리라
34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37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

실 것이요, 내가 세례 받는 세례로 너희도 세례 받으리
라.
40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
니라.
41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매
우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42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을 다
스린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높은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함을 너희가 아느니
라.
43 그러나 너희 사이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
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
어야 한다.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
니라.
46 그들이 예리코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예리코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눈먼 바디매오가 큰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
습니다.
47 그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가로
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48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권하였으나 그는 더
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라
49 그리고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
셨다. 그리고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말했
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50 그러자 그는 옷을 벗어던지고 일어나 예수께 다가갔
습니다.
5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자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얻게 하옵소서.
5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가 곧 시력을 얻고 예수를
따라 길을 가니라.

제 11 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니
2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
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요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시니
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
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그러
면 주께서 그를 곧 여기로 보내실 것이다.
4 그들이 가서 문 밖 두 길이 갈라지는 곳에 새끼 나귀
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 주었다.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
하였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무엇을 하는 거요?"
6 그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
이 놓아주었다.
7 그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들의 옷을 그
위에 덮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8 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놓았고, 어떤 사
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다.
9 앞서 가는 자들과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쳐 이르되 호
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나이다 하니라
10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복이
있을지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 예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
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저녁때가 되자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12 그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돌아오니 예수께서 배
고프시더라
13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보셨더니 잎사
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4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아
무도 네 열매를 영원히 먹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의 제
자들이 그것을 들었느니라.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사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
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16 그리고 누구도 성전을 통과할 때 어떤 그릇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7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18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어떻게
멸할까 궁리하였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며, 온
백성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19 저녁이 되자 그는 성 밖으로 나갔다.
20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들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21 그러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
생님, 보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
으라.
2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
겨져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
할 때에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
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누구에게든지 원망하는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26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라.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성전에
서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그에게 와서
28 그에게 말하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
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고 대답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30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서 왔는가? 대답해 보시오.
31 그리고 그들은 서로 논쟁하여 말했습니다. "만약 우
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는 '그러면 왜 그를 믿
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32 그러나 만일 사람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그들은 백
성을 두려워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으로 선지
자로 여겼기 때문이니라.
33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이르되, 우리는 알 수 없나
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제 12 장

1 그리고 그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어
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저
장고를 위한 장소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임
대해 주고, 먼 나라로 갔다.
2 그 때가 되자 그는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원에
서 나는 열매를 농부들에게서 받도록 하였다.
3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그리고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적으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5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였
고 그 외에도 여러 종을 죽였다.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다.
6 그런데 그는 또 한 명의 아들,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 있었으므로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
되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상속
자다.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8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인 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습니
다.
9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와서
농부들을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
이다.
10 너희는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느니라
11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12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
13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 중에서 몇 사람을 보
내어 그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였더라.
14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
이 진실하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는 줄 압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써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허락됩니까, 허락되지 않습니까?"
15 우리가 줄까, 아니면 주지 말까? 그러나 그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왜 나를 시험하
느냐? 한 푼이라도 가져와서 내가 볼 수 있게 해다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
했다, 이 형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
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들이 그
를 보고 놀랐더라.
18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니 이르되
19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였으니,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아내를 남겨 두고 자식을 두지 아
니하면 그 형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후손을 세우게
하라 하였느니라.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아내를 맞이
하였고 죽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21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 죽고 자손을 남기지 못
하였고 셋째도 마찬가지였다.
22 일곱이 다 그 여자를 낳았으나 후사를 남기지 못하
였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그러면 부활 때, 그들이 일어날 때, 그녀는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사람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그릇된 생각을 하
는 것이 아니냐?
25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
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요
26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씀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
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
님이니라.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
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그릇 행하는도
다.
28 그러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서로 변론
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
니까?"
29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모든 계명 가운데 첫
째 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오
직 한 분이신 주이시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
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31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32 그러자 서기관이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당신의 말
씀은 참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
른 이가 없나이다.
33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
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34 예수께서 그가 분별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
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
다.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묻지 못하니라.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대답하셨다. " 서기
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36 다윗은 성령으로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
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37 그러므로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는 어디서 그의 아들이냐? 그리고 일반 백성은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3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했
습니다. "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
사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십시오.
39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가장 높은 자리와
40 과부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니 이런 자들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41 예수께서 금고 맞은편에 앉으사 무리가 금고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니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더라.
42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두 개를 넣었
는데 그것이 한 파운딩이었습니다.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으니라
44 그들은 다 넉넉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여자는 궁
핍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
느니라.

제 13 장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
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무슨 모양이며 무슨 건물
들이 있는지이다 하니라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요
3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으셨을 때에 베
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비밀히 그에게 물으
니
4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
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
을 것입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
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말라 이
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
어날 것이요,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과 환난이 있으
리니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
에 넘길 것이요,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요, 너
희가 나 때문에 관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임은 그
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니라.
10 복음은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11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생각지도 말고,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말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12 이제 형이 형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요, 아버지가 아
들을 넘겨줄 것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요.
13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그러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지
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피하라.
15 옥상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 안에 들
어가서 집 안의 물건을 꺼내지 말라.
16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다시 돌아서지 말라.
17 그러나 그 날에는 아이를 낳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
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8 그리고 여러분의 도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
도하십시오.
19 그 날에는 환난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
니다.
20 그러나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키지 않으셨다면 아
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택
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시키셨습니다.
21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할 것입니다.
23 그러나 주의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미
리 말하였노라.
24 그러나 그 날들, 그 환난 후에 해는 캄캄해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25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
들릴 것입니다.
26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 속에 큰 권능과 영광
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7 그러면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
지 사방에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약하
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31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33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4 인자는 마치 집을 떠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으니,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때일지, 자정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제 14 장

1 이틀이 지나자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간계를 동원하여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찾았다.
2 그러나 그들은 "군중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3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중한 향유인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또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분노하여 "왜 이렇게 기름을 낭비하였는가?"하고 말하였다.
5 그것은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6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내버려 두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8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녀는 내 몸에 장례를 위해 미리 와서 기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녀를 기념하여 말하리라.
10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하였다.
11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그를 배신할 수 있을지를 찾았습니다.
12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3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14 그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손님방은 어디냐 하시더라.
15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넓고 넉넉한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16 그의 제자들은 나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17 저녁이 되자 그는 열두 제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18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19 그러자 그들은 슬퍼하며 하나하나 그에게 "저냐?"하고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이 "저냐?"하고 물었습니다.
2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둘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21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나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3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들에게 주셨고, 모두가 그 잔을 마셨습니다.
2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26 그리고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나갔습니다.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28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르되 비록 모두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3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31 그러나 그는 더욱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당신을 전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33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매우 놀라시고 몹시 괴로워 하셨다.

34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 영혼은 죽음에 이
를 정도로 슬픕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지켜보세요."
35 그리고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가능하
다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
다.
36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마
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원하십시오."
37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시몬아, 잠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38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영은 참으
로 준비되었으나 육신은 약하도다.
39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0 그리고 그가 돌아와 보니, 그들은 또 잠들어 있었습
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에
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41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
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충분하다. 그 시간이 왔다. 보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팔려간다."
42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
니라.
4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사이에 곧 열두 제
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
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
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44 예수를 배반한 자는 그들에게 표식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
하게 끌고 가라 하였더라.
45 그가 오자마자 곧 그에게 가서 “선생님, 선생님” 하
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다.
46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잡았습니다.
47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
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
4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도둑을 잡으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50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51 또 어떤 청년이 그를 따라갔는데, 그의 벗은 몸에는
아마포를 두르고 있었다. 청년들이 그를 붙잡았다.
52 그는 세마포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들에게서 도
망하였다.
53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그와 함께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
54 베드로는 멀리서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궁전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55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
다.
56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더라.
57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 우리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다
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인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네게 대하여 증거
하는 바가 무엇이냐
61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물어서, 네가 그리스
도, 곧 축복받은 자의 아들이냐?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너희는 인자가 권능
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을 보리라 하시니라
63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
우리에게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64 너희는 그 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생각하
느냐?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를 사형에 처한다고 정죄
하였다.
65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
고, 그를 때리며, "예언하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하인
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기도 하였다.
66 베드로가 아래 궁전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67 그 여자는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를 쳐다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
었잖아요."
68 그러나 그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고 그는
현관으로 나갔는데, 닭이 울었다.
69 그러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
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 중의 하나
입니다."
70 그리고 그는 다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
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
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고 당신의 말은 그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71 그러나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72 두 번째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였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
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다.

제 15 장

1 이튿날 아침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
게 넘겼다.
2 빌라도가 그에게 물으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그렇게 말하노라.
3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으나 예
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4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 대답도
아니하느냐 보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증
거를 하는지 보소서.
5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6 그 절기에 그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 주었느니라.
7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함께 묶여 있던 바라바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더라.
8 그러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께서 자기들에
게 행하신 대로 하시기를 원하기 시작하였다.
9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0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알
았더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오히려 바라
바를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
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13 그러자 그들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14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무슨 악한 일
을 했느냐? 그리고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
자가에 못 박아라.
15 빌라도는 백성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풀어 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
16 그리고 군인들은 그를 프라이토리움이라 불리는 홀
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온 군대를 불렀다.
17 그들은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다.
18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경례하기 시작하였다. "유대
인의 왕 만세!"
19 그리고 그들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
을 뱉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20 그들은 예수를 조롱한 뒤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21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키레네 사람 시
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강요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23 그들은 그에게 몰약을 타서 만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받지 아니하였다.
24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나
누어 제비를 뽑아 누구든지 무엇을 가질지 정하였습니
다.
25 때는 오후 3 시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6 그의 고소장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7 그들은 그와 함께 두 도둑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못 박
았습니다.
28 이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는 범
죄자들과 함께 세어졌느니라."
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를 비방하며 이르
되 아하, 성전을 헐어 사흘 만에 짓는 자여
30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남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오셔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소서. 그리고 그와 함께 십
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33 여섯 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아홉 시까지
이어졌습니다.
34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
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로다.
35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36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적셔 갈
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이르되, 그럴 것도 없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줄지 봅시다 하니라.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8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
졌습니다.
39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
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쇠잔해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40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
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
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41 (또한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라와서 섬기
던 여자들도 있었느니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느니라.
42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이는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
이었기 때문이라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고, 그는 존경받는 의원이
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였다.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는지 이상히 여겨 백
부장을 불러 예수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물
었습니다.
45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는 시체를 요셉에게
주었다.
46 그는 고운 아마포를 사서 시체를 내려다가 그 아마
포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뉘어 놓고 무덤 문
에 돌을 굴려 막았다.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가 묻
힌 곳을 바라보았다.

제 16 장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사 두었으니 이는 가서 예수
께 기름을 바르려 함이더라.
2 그리고 그 주의 첫날 아침 일찍, 해가 뜰 무렵에 그들
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3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낼 것인가?"
4 그들이 살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돌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니 오른편에 긴 흰 옷을 입은 청
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6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놀라지 마십
시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
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라, 그를 뉘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7 그러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니라
8 그러자 그들은 급히 나가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왜
냐하면 그들은 떨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에
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려워했기 때문입니다.
9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먼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일
곱 귀신을 쫓아내신 자라
10 그리하여 그 여자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애통
해하며 울고 있을 때에 가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
하였다.
11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고 마리아에게 나
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12 그 후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두 사람에게 나타
나시니 그들이 걸어가서 시골로 들어가더라.
13 그들은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였으나 아
무도 믿지 아니하니라.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
짖으셨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자기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1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온 세
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할 것이
요,
18 그들은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
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
을 것이라.
19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
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0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서 전파하였고, 주
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뒤따름으로 말씀
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루크

제 1 장

1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믿어지는 것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려고 하였으므로
2 이는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봉사자였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니라
3 모든 일을 처음부터 온전히 알고 있던 나도 각하께 순
서대로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나이다.
4 이는 네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의 확실성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5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통에 속한 제사장이 있
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행하였더라.
7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는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8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 반차대로 집
행하더니
9 제사장의 관례에 따라, 그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분향을 하는 것이 그의 제비였습니다.
10 그리고 온 백성은 분향하는 동안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12 사가랴는 그를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 사가랴. 너의 기도가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
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
여라."
14 너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
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나 독
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신으
로 충만하리라.
16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많은 사람을 그
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
의 지혜로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 준비된 백성을 준비시
킬 것입니다.
18 그러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
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19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이 기
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니라
20 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요, 내 말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라.
21 그리고 백성들은 스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 그
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22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그는 그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
23 그리고 그의 봉사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4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다섯 달 동
안 숨어 지내며 말하였다.
25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이렇게 나를 대하셨으
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시려는 것이니라.
26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
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는데
27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이
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은
총을 많이 받은 자여, 안녕하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
께 계시오.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소."
29 마리아는 그를 보고 그의 말에 당황하여 이것이 무
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30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
지 마세요,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
다."
31 보라, 네가 네 태중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
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
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34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
를 모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성
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
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
느니라.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 불리던 이 여자
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
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39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
40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
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
다.
42 그러자 그 여자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는 여자
들 중에 복이 있고 네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43 그러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실 일이 무엇입
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자마
자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45 그리고 믿은 그 여자는 행복합니다. 주께서 그녀에
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47 내 영은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노라.
48 이는 그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
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50 그의 자비는 대대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느
니라.
51 그는 당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
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52 그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53 그는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
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54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
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55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아브
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이니라.
56 마리아는 마리아와 함께 약 3 개월을 지내고 자기 집
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이제 해산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
다.
58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59 여덟째 날에 그들은 그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불렀다.
60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럴 수 없
노라. 요한이라 불릴 것이라.
61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62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를 어떻게 부르고
싶은지 손짓으로 표시했습니다.
63 그리고 그는 필기대를 구하여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고 쓰니 모두가 놀랐다.
64 그러자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65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
혔으며, 이 모든 말은 유다의 온 산간 지방에 널리 퍼졌
습니다.
66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게 무슨 아이일까!"하고 말하였고, 주님의 손
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67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68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릴지어다 그
가 그 백성을 돌보아 구원하셨음이니라
69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
으키셨으니
70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
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71 이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72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베푸시고, 그 거
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73 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니
74 이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두려움 없
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니라
75 우리는 평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분 앞에 서겠습
니다.
76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리리
라. 네가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리라.
77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 사함으로 구원에 대한 지
식을 주시고자 하심이니
78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에
서 아침 해가 우리를 찾아왔으니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
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80 그 아이는 자라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
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 2 장

1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호적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이 세금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
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3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려 각자 자기의 고향으
로 돌아갔습니다.
4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로 가서 다윗의 성 곧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갔으니 이는 그가 다윗
의 집안과 혈통이었기 때문이더라
5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많이 가졌으므로 그녀
와 함께 호적을 매겨야 했습니다.
6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
게 되었다.
7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아서 포대어 구유에 뉘었습니
다.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8 또 그 지방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
니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
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너희가 포대기에 싸
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요
13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
였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일을 보자."
16 그들은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
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17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관하여 자기들
에게 들은 말씀을 널리 알렸습니다.

18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자기들
에게 전한 말에 놀랐다.
19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
곰이 생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
습니다.
21 그리고 아이의 할례를 위한 여덟 날이 지나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날이 차
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바쳤다.
23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태를 여는 남자마다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릴 것이요.')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로 드리라.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
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
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26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
지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그에게 계시하셨
느니라.
27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부모가 율법
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어린 예수를 데리고 왔더
니
28 그러자 그는 그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
했습니다.
29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하시나이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 앞에 예비하신 것이니이다.
32 이방인들에게는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33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에 관하여 말한 것에 놀랐
다.
34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한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35 (네 영혼도 칼에 찔리리라)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36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누엘의 딸
로서 아셀 지파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
았고 처녀로서 태어난 지 일곱 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
37 그 여자는 84 년이나 된 과부였는데, 성전에서 떠나
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8 그러자 그 여자도 그 순간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
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39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
고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
니다.
40 그 아이는 자라서 영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41 그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갔
습니다.
42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시매 그들은 절기의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43 그들이 정해진 기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어린 예
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요셉과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44 그러나 그들은 그가 일행 중에 있을 줄 알고 하룻길
을 가서 친척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다.
45 그러나 그들은 그를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았다.
46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발
견하였는데, 그는 박사들 가운데 앉아 계셨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47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혜와 대답
에 놀랐다.
48 그들이 그를 보고 놀랐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
르되 아들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4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나
를 찾은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
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느냐?"
50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51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
에게 복종하셨으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고, 하나님과 사람
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제 3 장

1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열다섯 해에 본디오 빌라도
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의 동생 빌립이 이두래아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
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3 그는 요단 강 부근의 모든 지방에 와서 죄 사함을 위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4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5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7 그러자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말씀하
셨다. "독사의 세대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
게 일러준 사람이 누구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
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9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10 그러자 백성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 있
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
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12 그러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예수께 "선생
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1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정
해진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14 군인들도 그에게 요구하여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어
떻게 해야 하리이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에
게도 폭행을 행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
의 삯에 만족하라 하니라
15 그러자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마
음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
다.
16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리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7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깨끗이 하여 밀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18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도
전파했습니다.
19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
디아의 일과 헤롯이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그에게 책
망을 받았으므로
20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
두었습니다.
21 온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
으시고 기도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22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 모양의 형체로 그에게 내려왔
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
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23 예수 자신도 삼십 세쯤 되셨는데,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 생각하셨느니라.
24 그 아들은 맛닷이고, 그 맛닷은 레위이고, 그 맛닷은
멜기이고, 멜기는 야나이고, 야나는 요셉이고,
25 마타디아의 아들이요, 마타디아의 아들은 아모스요,
아모스의 아들은 나움이요, 나움의 아들은 에슬리요,
에슬리의 아들은 낙게요,
26 마앗의 아들, 마앗의 아들은 마타디아스, 마타디아
스는 세메이, 세메이는 요셉, 요셉은 유다의 아들입니
다.
27 요안나는 요안나의 아들이요, 요안나는 레사의 아들
이요, 레사는 조로바벨의 아들이요, 조로바벨은 스알디
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28 멜기의 아들은 멜기요, 멜기는 아디요, 아디는 고삼
이요, 고삼은 엘모담이요, 엘은 에르요,
29 요세의 아들, 요세의 아들은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아들은 요림, 요림의 아들은 마닷, 마닷의 아들은 레위
입니다.
30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아들은 유다요, 유다
의 아들은 요셉요, 요셉의 아들은 요난요, 요난의 아들
은 엘리아김이요,
31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
난은 마타다의 아들이요, 마타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32 이새의 아들은 예새요, 예새는 오벳이요, 오벳은 보
아스요, 보아스는 살몬이요, 살몬은 나손이요,
33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아람의 아들이요,
아람은 에스롬의 아들이요, 에스롬은 바레스의 아들이
요, 바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34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아
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데라, 데라는 나홀의 아들
입니다.
35 이 사람은 사루크의 아들이요, 사루크는 라가우의
아들이요, 라가우는 팔렉의 아들이요, 팔렉은 헤베르의
아들이요, 헤베르는 살라의 아들이요,
36 이는 가이난의 아들이요, 가이난은 아르팍삿의 아들
이요, 아르팍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
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요,
37 이는 메트셀라의 아들이요, 메트셀라는 에녹의 아들
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말랄렐의 아들
이요, 말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요,
38 이 사람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
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
니다.

제 4 장

1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시
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니
2 마귀에게 사십 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그 기간 동
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셨으며, 그 기간이 끝나자
배고프셨습니다.
3 그러자 마귀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
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
라."
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
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5 그러자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
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더라.
6 그러자 마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
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7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를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
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9 그리고 그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
에 세우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보아라.
10 기록되었으되 "그가 네게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
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1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언제든지 네 발이 돌
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그러자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얼마 동안 그에
게서 떠나갔다.
14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그 지방 사방에 퍼졌느니라.
15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
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16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
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
서셨다.
17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
가 책을 펴서 그 책이 기록된 곳을 찾았다.
18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
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
요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
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
고
1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20 그리고 그는 책을 닫고, 그것을 다시 목사에게 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2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습니다."
22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증거하고 그의 입에서 나
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반
드시 나에게 이런 속담을 말할 것이다. '의사야, 네 자신
을 고쳐라.'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것을 네 고향
에서도 행하라."
24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
게 말한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
한다."
25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
에, 곧 하늘이 3 년 6 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기근
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26 그러나 엘리아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시돈의 한 성읍 사렙다의 과부에게
만 보내졌더라.
27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28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
득 찼습니다.
29 일어나 그를 성 밖으로 밀어내어 그 성읍이 세워진
언덕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를 머리부터 땅에 떨어뜨리
려고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31 그리고 갈릴리의 한 동네인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안
식일에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32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3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4 이르시되,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
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
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
한 자이십니다.
3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히 있고 그에게
서 나오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가운데 던진 후에 나와
서 그를 해치지 아니하니라.
36 그러자 그들은 다 놀라 서로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 사람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을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구나."
37 그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더라.
38 그리고 그는 회당에서 일어나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심한 열병에 걸렸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그에게 간청했다.
39 예수께서 그 여자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
러자 열병이 그 여자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는 곧 일어
나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40 해가 지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은 사람들이 모두 그
를 데려왔다. 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41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와서 소리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말하니,
그는 그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
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42 날이 밝자 예수께서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시니, 무
리가 그를 찾아와서 예수께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
셨더라.
4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다른
성읍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위
해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4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
다.

제 5 장

1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몰려들매
그가 게네사렛 호수 곁에 섰더라
2 그리고 호수 옆에 두 척의 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
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
습니다.
3 그리고 그는 시몬의 배 중 하나에 올라타서 그에게 땅
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4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
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말씀
하신 바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 그들이 이렇게 하니,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갇혔고 그
물이 찢어졌습니다.
7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두 배를 모두 채웠고,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
르되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로소이
다 하니라
9 그가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놀랐다.
10 또한 시몬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
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을
것입니다.
11 그리고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
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12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고을에 계시니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13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그러자 즉시 문둥병이 그
에게서 떠났습니다.
14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
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
진 것에 대한 예물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드려 그들에
게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15 그러나 그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였
습니다.
16 그리고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
다.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갈릴리 각 마
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
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18 그러자 사람들이 마비 환자 한 명을 침대에 데려왔
다. 그들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앞에 눕힐 방법을 찾았
다.
19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데려올 길을 찾을 수 없자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고 그의 침상을
가운데로 예수 앞에 내려 보냈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21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리하기 시작하
여 이르되, 이 훼방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22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23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
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는가?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마비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
25 그러자 그는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
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6 그러자 그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
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27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가시어 세리 레위
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
라 하시니라
28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
다.
29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
었는데,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앉았
다.
30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
들을 대하여 투덜거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
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
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러하거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어찌하여요?"
34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가 신방에 있는 자녀들을 금식
하게 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신랑이 그들에게서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요
36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
지 아니하면 새 옷도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
은 낡은 옷과 맞지 아니하느니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그
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쏟아지고 부대도 망
가질 것입니다.
38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
야 둘 다 보존됩니다.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곧바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말하기 때
문입니다.

제 6 장

1 첫째 안식일 다음 둘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
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
벼 먹더라.
2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
였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하느냐?"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다윗
이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배고프게 굶주렸을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진설빵을 가져다가 먹
었으며,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는데, 이
빵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느니라.
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
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
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7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고
발할 만한 혐의를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8 그러나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손이 마른 사람에게
" 일어나서 가운데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서 있었습니다.
9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멸하는 것이 옳으냐
10 그리고 그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였
고, 그의 손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11 그러자 그들은 미칠 듯이 분노하여 예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12 그 무렵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 밤새
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3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가운데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으니
14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15 마태와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테라 불리
는 시몬,
16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또한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
도 있느니라.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그의
제자들의 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온 백성과,
티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왔다.
18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도 나음을 얻
었습니다.
19 그러자 온 무리가 그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
면 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20 그리고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
하셨습니다. "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
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21 지금 주리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불
리 될 것임이요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무리에서 떼어놓
고, 너희를 모욕하고, 인자의 이름으로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보라, 너희의 상이 하늘
에서 크니라.이와 같이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행하였느니라.
24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너희는 이
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25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주릴 것이요.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애통해하며
울 것이요.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하였느니
라.
27 그러나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
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업신여기
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29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 대고, 네 겉
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빼앗는 것을 꺼리지 말
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
게는 다시 요구하지 말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대로 하라.
32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하느니라
33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베
푼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는 자에게 빌려 주면 무슨 칭찬
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죄인에게 빌려 주어 그대로 되
돌려 받느니라.
35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 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니라.
36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
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37 판단하지 말라.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
이다.정죄하지 말라.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용서하라.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누르고 흔들
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줄 것이요, 너희가 재는 그 재
로 너희에게 다시 재어질 것이니라.
3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 눈
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
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가 그의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한 자는 다
그의 스승과 같을 것이니라
41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가 네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
게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네
가 직접 보지 못하면서 말이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러면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나쁜 나무
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44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46 너희는 왜 나를 주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내가 말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48 그는 집을 짓고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은 사
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그 집을 강타하
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집은 바위 위에 기초를 두
었기 때문입니다.
49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이 그 집에 격렬히 부
딪히매 집이 곧 무너지고 그 집은 큰 황폐함을 입었느
니라.

제 7 장

1 예수께서 군중 앞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
나움으로 들어가셨다.
2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
었습니다.
3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
4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 곧 간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실 분이 합당하신 분이시니이다 하니라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6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자 백부장은 친구들을
그에게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7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
였사오니, 한 마디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
을 것입니다.
8 나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
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
키시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
라 하시니라
10 그리고 보내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병들
었던 종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11 그 다음날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과 무리가 그와 함께 갔습니다.
12 그가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 보라, 죽은 사람 한 명이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으며, 그 성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
께 있었더라.
13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말라.
14 그리고 그는 와서 들것을 만졌고, 그를 나르던 자들
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15 그러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니, 그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16 그러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
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
셨다."
17 그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과 그 주변 지방으로 퍼
졌습니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하였다.
19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불러 예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
다리겠나이까?
20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침례 요한이 우
리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오실 그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나이다?"
21 바로 그 시간에 그는 많은 병자와 질병, 그리고 악령
을 고쳐 주셨고, 많은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셨습
니다.
22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셨다. "가
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곧 눈먼 사
람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
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려 주어라.
23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4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그는 요한에 관하여 백성에
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무엇
을 보려고 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섬세
하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를 보려고 하였느니라.
27 이 사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얼굴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
라."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
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나니 그러나 하나
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29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와 세리들은 요
한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30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로부
터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하
나님의 뜻을 배척하였더라.
31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32 그들은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33 세례자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저가 마귀가 들렸다
하느니라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는 보라 탐식하는 자
요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35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자녀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36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께 함께 식사하기를 원
하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시니라.
37 그런데 그 성읍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
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줄 알고 향
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그리고 그의 뒤에서 그의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의 발에 입 맞
추고 향유를 발랐다.
39 그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 어떤 채권자에게 두 명의 채무자가 있었는데, 한 사
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오십 데
나리온을 빚졌습니다.
42 그리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을 때, 그는 두 사람을 모
두 솔직히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할 것인지 말해 보세요.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가장 많이 용서한 사
람이라고 생각하노라.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이르되, 네
가 옳게 판단하였노라.
44 그리고 그는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했습
니다 .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너
는 내 발에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45 너는 나에게 입맞춤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여자는 내
가 들어온 이래로 내 발에 입맞춤하는 것을 그치지 아
니하였노라.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
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주었느니라.
47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은 것을 사랑하였음
이요, 사하여진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니라.
48 그리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 당신의 죄
가 용서되었습니다."
49 그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도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
였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하는가?"
50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 네 믿음
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제 8 장

1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셨는데 열두 제자
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2 또 악령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막달
라 마리아라 하는 여자,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여자도 있
더라
3 그리고 헤롯의 집사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와 다른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
로 그를 섬겼다.
4 많은 백성이 모여서 각 성읍에서 예수께 나아오니 예
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6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트자마자 말라
버렸다. 습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7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
께 돋아나서 숨을 막았습니다.
8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백 배의 열
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하시고, " 들
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9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비유는 무
슨 뜻입니까?"
10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하나님 나라의 신비
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는 비유로 말하니, 이는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
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1 그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3 바위 위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도 나가 이 세
상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질식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
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5 그러나 좋은 땅에 심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좋은 마
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16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
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
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17 비밀한 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은 알려지고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가 있
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니라.
19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에게 왔으나 무리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20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형
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전하
였습니다.
2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
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들이 배를 띄우니라.
23 그러나 그들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그는 잠이 들
었습니다. 그러자 호수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들은
물에 잠겨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4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선
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바람과
물의 격노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바람과 물의 격노가
그치고 고요함이 있었다.

25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서로에게 말
하였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니, 그것들은 그에게 복종한다.
26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에 이르렀습니다.
27 그가 육지로 나가자 성읍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그
를 맞으러 나왔는데, 그는 오랫동안 귀신이 들렸고 옷
을 입지도 않았으며 어느 집에도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만 지냈습니다.
28 그는 예수를 보고 소리치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구하옵나니 나를 괴롭
히지 마옵소서 하니라
29 (이는 예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는 쇠사슬과 족쇄로 묶여 있었으나 그
는 그 결박을 끊고 마귀에게 쫓겨 광야로 나갔느니라.)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
니, 그가 대답하되, 군단이라 하였으니 이는 많은 귀신
이 그에게 들어갔음이니라.
31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명령하
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2 그리고 산 위에는 많은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
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을 허락했습니다.
33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돼지 떼가 급히 가파른 곳으로 달려 호수로
들어가 숨이 막혔다.
34 그들을 먹이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과 촌락에 가서 이 일을 알렸다.
35 그러자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갔다가
예수께 다가가서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은 두려워했다.
36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고
침을 받았는지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37 그러자 가다라 지방 주변에 있는 온 무리가 예수께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타 다
시 돌아가셨습니다.
38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께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
청하였으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며 이르시
되
39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행하신 큰 일
을 보여 주라.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도성에 전파하니라.
40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기쁘게 그를 영접하였
습니다. 그들은 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1 그런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었
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들어오시기
를 간청하였다.
42 그에게는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자 군중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43 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는 의사들에게 전 재산을 다 썼지만 아무에게서도 고침
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44 그가 뒤로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이 멎었다.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를 만졌느냐? 모든 사람
이 부인하니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 무리가 당신을 에워싸고 압박하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하느냐?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누군가가 나를 만졌구나. 나
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깨달았구나."
47 그 여자는 자기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무슨 일로 그를 만졌는지, 또 어떻게
곧 나았는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고백하였다.
48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딸아, 안
심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평안히 가
세요."
49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의 딸이 죽었
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5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
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여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51 그리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
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
는 아무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52 그러자 모두가 울며 그녀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예
수께서 말씀하셨다. " 울지 마십시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 그들은 마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비웃었다.
54 그러자 그는 그들을 다 내쫓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소녀야, 일어나라.
55 그러자 그 여자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그 여자가 곧
일어났다. 그러자 그는 그 여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
56 그 부모는 놀랐으나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제 9 장

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
셨습니다.
2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
고 병자를 고치도록 보내셨습니다.
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여행을 위해 아
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지팡이도 배낭도 빵도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각자 두 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떠
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
로 삼으라.

6 제자들은 떠나 각 마을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
에서 병을 고쳤습니다.
7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요한이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몹
시 당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8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였고, 어떤 사
람들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
습니다.
9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노라. 그러나 내
가 이런 말을 듣는 이는 누구냐? 하고 그를 보고자 하더
라.
1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데리고 조용히 베
싸이다라는 도시에 속한 황무지로 가셨습니다.
11 그러자 군중이 그것을 알고 그를 따라왔다. 그는 그
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하며,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었다.
12 날이 저물어 가자 열두 제자가 나아와서 예수께 이
르되 무리를 돌려보내어 주변 마을과 시골로 가서 묵고
양식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황무한 곳이
니이다 하니라
13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
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해 고기를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14 이는 그들이 약 오천 명이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오십 명씩 한 무리로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 그들은 그렇게 하여 그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16 그러자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
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17 그들이 먹고 다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모아 열두
바구니를 얻었더라.
18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니 제자들도 그와 함께 있더
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 사람들은 나를 누구
라고 하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자 요한이라 하되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부활하였다 하느니라
20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
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21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엄격히 명령하여 이 일을 아
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2 이르시되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
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23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
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려는 자는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당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
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지 팔일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
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
가셨다.
29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의 얼굴 모습이
바뀌었고, 그의 옷은 희고 반짝였습니다.
30 그런데 보라, 그와 함께 두 사람이 말하니 이는 모세
와 엘리야라.
31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32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잠에 빠
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습니다.
33 그들이 떠나가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하고 말하되 무
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34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35 그러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36 그리고 그 음성이 지나간 후에 예수는 홀로 발견되
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꼭꼭 지켜 두었고, 그들이
본 그 일들을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37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군중이
그를 맞았습니다.
38 그러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소리지르며 이르되,
선생님,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는 제 외아들입
니다.
39 그러자 영이 그를 붙잡으니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
르고, 영이 그를 찢어 다시 거품을 토하게 하며, 그를 상
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40 그래서 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패역
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
겠느냐? 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42 그가 아직 오려고 할 때에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찢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시고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넘겨 주셨다.
43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놀랐습
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놀랐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 이 말씀을 너희 귀에 새겨 두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
에 넘겨지리라.

45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이 말씀
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였
으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에게 묻는 것도 두려
워하였습니다.
46 그러자 그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47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
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누구든지 내 이름으
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
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큰 사람이 될 것이다."
49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어떤 사람
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
이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
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51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가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가
기로 굳게 결심하셨으니
52 그리고 예수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가
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를 하였다.
53 그러나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
렘으로 가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54 그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
님, 우리가 엘리야가 한 것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
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한지 알지 못하느냐?
56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
원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리니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
습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59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
라.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해주십시오.
6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죽은 자들이 죽은 자
들을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1 또 다른 제자도 이르되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
습니다. 그러나 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작별 인
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6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을 쟁기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 10 장

1 그 후에 주께서는 또 다른 일흔 명을 임명하시어, 친
히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방으로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셨습니다.
2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니라
3 가서 너희의 길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
로 보내는 어린 양과 같으니라.
4 지갑이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길에
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여라. '이 집에 평화
가 있기를.'
6 만일 평화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에
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평화가 다시 너희
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7 그리고 같은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
라. 일꾼은 자기 삯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
8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
하면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을 먹으라.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
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10 그러나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
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읍 거리로 나가서 말하여라.
11 너희 성읍에서 우리에게 붙은 먼지까지도 우리가 너
희에게 털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신하라.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소돔은 그
성읍보다 더 견딜 만하리라.
13 화가 너 고라신아! 화가 너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
해진 그 권능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
은 벌써 오래 전에 회개하고 자루옷과 재에 앉아 있었
을 것이다.
14 그러나 심판 때에는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
딜 만할 것이다.
15 너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이제는 음부
에까지 낮아지리라.
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니라.
17 그러자 일흔 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
다."
18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노라. 아무 것도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
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
뻐하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늘
과 땅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감사하옵나니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음이니이다. 그러하옵니다, 아
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이니이다.
22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 주셨으니, 아들
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버지뿐이고, 아버지가 누구

인지 아는 사람은 아들과 아들이 계시를 주시는 자뿐이
다.
23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제자들에게 돌려보내시며
비밀히 말씀하셨다. "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
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
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5 그러자 어떤 율법 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하라."
28 그러자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 그러나 그는 자기를 정당화하고자 하여 예수께 말하
였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31 그런데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는데,
그는 그를 보고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32 또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반
대편으로 지나갔다.
33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그가 떠난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
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
이 더 들더라도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36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
같으냐?
37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38 그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
니,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39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도 예
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빴고, 예수께 와서 "주
님, 제 누이가 저 혼자 일하게 버려둔 것을 돌보지 않으
십니까?"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저를 도와
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나니
42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 좋은 부분
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 11 장

1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마치시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
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
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라.
2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어서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친구야, 빵
세 개만 빌려 줘' 하고 말하면,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7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
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당신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그가 친구인 까닭에 일
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에게 필요한 만큼 주리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
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10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 만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 아들이 떡을
구하면 돌을 주겠느냐? 만일 그가 물고기를 구하면 물
고기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2 만일 그가 달걀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
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그리고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귀신은 말
못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 귀신이 말
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5 그러나 그 중의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귀신의 우두머
리인 베엘제붑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였다.
16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표
적을 구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 각 나라가 서로 갈라지면 황폐해지고,
다른 집에 맞서 갈라진 집은 무너집니다.
18 만일 사탄도 자기와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가 내가 베엘제붑의 힘으로 귀신을 쫓
아낸다고 말하니라.
19 내가 베엘제붑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니라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궁궐을 지키면 그의 소
유물은 안전하니라
22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 그는
믿었던 모든 무장을 빼앗고 그의 전리품을 나누어 가집
니다.
23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는 자니라
24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찾으나 찾지 못하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느니라.
25 그가 와서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장식되어 있
었다.
26 그러자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
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 상태는 처음보다 더 심
하게 됩니다.
27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시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음
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이 젖먹이신
젖가슴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라
28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9 무리가 다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악
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받을 표적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30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31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
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
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
할 것이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
음이요,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3 등불을 켜서 은밀한 곳에 두는 자가 없고 말뚝 아래
에 두는 자가 없고 등잔대 위에 두는 자가 있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34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밝으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고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움
으로 가득하다.
35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
의하라.
36 그러므로 네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고 어두운 부분
이 하나도 없으면 등불의 밝은 빛이 네게 비칠 때와 같
이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리라.
37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드셨다.
38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저녁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않으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
39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
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40 어리석은 자들아, 밖에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안에
있는 것도 만드시지 아니하셨느냐?
41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라. 그
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42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
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공의와 하
느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이런 것도 행하고 저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43 화가 있도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높
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느
니라.
44 화가 있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으니,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45 그러자 한 율법학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
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욕하시는 것이옵니다.
46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화가 있을 것이다, 너
희 율법 학자들아! 너희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사람들
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
47 화가 있도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지
만,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다.
48 참으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행위를 시인하는구나.
그들이 그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쌓았구나.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에
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 중 어떤 자들은
죽이고 박해하리라
50 세상 창조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
에게 요구되어야 합니다.
51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
의 피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52 화가 있도다, 율법 학자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으니, 너희 스스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들어
가려는 사람들도 막았느니라.
53 그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매 서기관들과 바리
새인들이 그를 격렬히 권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게 하
려고 하더라.
54 그들은 그를 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
아 고발하려고 하였다.

제 12 장

1 그 사이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
었을 때,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십시오.
2 덮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
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모든 것은 빛 가운
데서 들릴 것이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은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4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
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미리 일러 주
겠다.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분을 두려워하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은 두 닢에 팔리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아니하느냐?
7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져 있다. 그러므
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
다.
8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
을 시인할 것이요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받을 것이다.
10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말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11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치안관과 권세 있는 자들에
게 끌고 가거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
인가 걱정하지 말라.
12 성령께서 곧 그 시간에 너희에게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 그러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선생님, 제 형에게 말씀하셔서 저와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14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이 사람아, 누
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세웠느냐?"
15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조심하
고 탐심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은 그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한 소출을 냈더라
17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열매를 쌓
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18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헛
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짓고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거기
에 쌓아 두겠습니다.
19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20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네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
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22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
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은 옷보다 중요합니다.
24 까마귀를 생각하여라.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않고 거
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26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면,
다른 일들에 대하여 어찌 염려하느냐?
27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지 못하였느니라.
28 그러므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이면 가마에 던져
지는 풀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
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
십니다.
31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2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니,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이 먹는 일
이 없느니라.
34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35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두어라.
36 너희는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
는 사람들과 같아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
어 주려고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 복이 있도다.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
혀 식사하게 한 후에 나아와 종들을 섬길 것이요.
38 만일 그가 이경이나 삼경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하
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39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
간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의 집에 도둑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41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집
안을 맡아서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실
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겠느냐?
43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4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자기의 모
든 소유물을 그에게 맡길 것이니라.
4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이르되 주인이 오는 것
이 늦는구나 하여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기 시작하면
46 그 종의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에 와서 그를 두 동강 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그에게 몫을 정하리라.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만한 일을 저지른 자
는 적게 맞을 것이요.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

을 요구할 것이요, 많은 것을 저지른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니라.
49 나는 땅에 불을 보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어 있다
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50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
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궁핍하겠느냐!
51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
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 함이로다.
52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나뉘어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싸울 것이요.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
니와 갈라질 것이다.
54 그는 또한 백성에게 이르되 서쪽에서 구름이 오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온다고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위가 올 것이다" 하고 말
하는데, 그대로 된다.
56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이 시대는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57 그런데 왜 너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
느냐?
58 네가 네 원수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에는 길에 있
을 때에 힘써 그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하라 그렇지 않
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 주고, 관원이 너를 옥에 가두지 않도록
하라.
59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떠나지 못하리라.

제 13 장

1 그 무렵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전
했습니다.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
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3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
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
하느냐?
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
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6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
과나무를 심었더니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찾
아보았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더라.
7 그러자 그는 포도원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제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삼 년 동안
왔으나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찍어 버리십시오. 왜
땅을 더럽히겠습니까?"
8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금년도 그대로 두
소서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9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후
에 그것을 베어 버리라.
10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11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 병약함의 영을 들은
여자가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 조금도 일어설 수 없었
습니다.
12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풀려났느니라.
13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똑바로 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
을 보고 분노하여 무리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일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니라
15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셨다. " 위선자
야, 너희가 안식일에 각자 자기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
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두었는데, 안식일에라도 이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 그가 이런 말을 하니 그의 모든 적대자들은 부끄러
워하였고 온 백성은 그가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을 기뻐하였습니다.
18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과 같겠느냐 내가 무엇과 같을꼬
19 그것은 마치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은 겨
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그러자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
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습니다.
20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 하나님의 나라
를 무엇에 비할 것인가?"
21 그것은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
다가 밀가루 세 말 속에 숨겨 두었더니 온통 누룩이 되
었습니다.
22 예수께서는 여러 성읍과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
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23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
니다.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들어가려고 구하되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많으
리라.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
면, 그는 대답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하고 말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은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리
라.
27 그러나 그는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
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
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9 그들은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앉을 것입니다.
30 보라, 마지막이 되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가 마지막이 되리라.
31 그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아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떠나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32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겠고, 셋째 날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33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어가야 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견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기를 얼마나 자주 원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35 보라, 너희 집은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 14 장

1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먹으러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더라.
2 그런데 그의 앞에는 수종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니이까?
4 그리고 그들은 잠잠히 있더라. 그러자 그는 그를 붙잡아 고쳐서 놓아주셨고,
5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다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 그리고 예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어떻게 택하는지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8 네가 누구에게서 결혼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을 것이다.
9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고 말하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 그러나 네가 부르심을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부르신 분이 와서 너에게, 친구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때에야 너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경배를 받을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12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 네가 만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보답을 받을 것이다."
13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절름발이들과 눈먼 사람들을 청하라.
14 그리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네게 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15 그러자 함께 앉아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6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17 저녁 식사 때가 되자 자기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18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땅을 샀고, 꼭 가서 봐야 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19 또 다른 사람은 말하였다. "나는 멍에 소 다섯 마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제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21 그래서 그 종이 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런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오너라."
22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23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25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갔다. 그러자 그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비용을 세어 보고,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이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러면 그가 기초를 놓은 후에 그것을 마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요
30 이르되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하였구나.
31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이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논하지 아니하겠느냐?
32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절을 보내 평화 조건을 요구할 것입니다.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더할 수 있겠느냐?
35 그것은 땅에도 적합하지 않고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내쫓는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제 15 장

1 그러자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
2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니요."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4 너희 중에 누가 양 백 마리가 있으면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 아흔 아홉 마리를 광야에 두고, 없어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설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5 그리고 그는 그것을 찾아내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었다.
6 그가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 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 또 어느 여자가 은전 열 개를 가지고서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그 여자가 그것을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금을 찾았노라.
10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12 그리고 그들 중 어린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갈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3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모든 사람을 모아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로 자기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14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였을 때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궁핍하게 되었더라.
15 그래서 그는 가서 그 나라 시민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는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16 그는 돼지가 먹는 껍질로 배를 채우고 싶어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7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빵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19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 중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5 그런데 그의 큰아들은 밭에 있었는데, 그가 집에 가까이 다다르자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26 그리고 그는 하인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27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를 무사히 맞아들인 것을 알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었다.
29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재산을 먹어치운 이 아들이 오자마자 당신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죽였습니다.
31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입니다.
32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라.

제 16 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집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사는 그 집사가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 그리고 그는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3 그러자 관리인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주인이 나에게서 관리직을 빼앗아 가셨구나. 땅을 파는 것도 부끄럽고 구걸하는 것도 부끄럽구나."
4 내가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결심했습니다.
5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6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름 백 말.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산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오십이라고 쓰세요.

7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얼마나 빚졌어?"
그러자 그는 말했다. "밀 백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그
에게 말했다. "계산서를 가지고 80 이라고 써."
8 그러자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하였
기 때문에 칭찬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
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패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
한 거처로 영접할 것이다.
10 가장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실하고 가
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11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아니
하였으면 누가 참된 부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
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미
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붙잡고 다
른 주인을 멸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14 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말을 듣고 예
수를 비웃더라.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로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
가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그리로 나아갑니다.
17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
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18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남편과 버림받은 여자
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
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지냈습니다.
20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온 몸에
상처가 가득하여 그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21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
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
느니라.
22 그러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안겨 아브라함의 품
으로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23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들어 멀리 아브
라함과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봅니다.
24 그리고 그는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
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제 혀를 식혀 주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르되 아들아,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기
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
도 갈 수 없고, 저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27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내게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심이
라 그러면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아니하게 하
려 함이로다.
29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30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31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
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라

제 17 장

1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일
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
으리라 하시니라
2 그가 이 작은 이들 중의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꾸지람하고,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 만일 그가 하루에 일곱 번이나 네게 죄를 범하고 일곱
번이나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
를 용서하라.
5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
워 주십시오."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
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
니라.
7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던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곧 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겨라" 하고 말하지 않겠
느냐? 그런 후에 너는 먹고 마실 것이다.
9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감사
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할지니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
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그를 만나 멀리 서서
13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예수
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가
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가
는 동안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15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낯선 사
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9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일어나 가거
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안 된다. 보라, 하나
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인자의
날을 하루라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23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를 보라.' 또는 '
저기 보라.' 하여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
지도 말라.
24 하늘 아래 한 편에서 번쩍인 번개가 하늘 아래 저 편
까지 비치는 것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
림을 받아야 합니다.
26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
망시켰느니라.
28 또한 롯의 때와 같았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
고 팔고 심고 지었으니
29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31 그 날에 옥상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집 안에 두고 내
려와서 가지고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도 뒤로 돌아
가지 말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3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다른 한 사람
은 버려둘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36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
람은 버려질 것이요.
3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요, 주님?하니, 그가
이르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제 18 장

1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
다.
2 이르되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더라
3 그 성읍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
니다.
4 그러나 그는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였으나 후에 속
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을 무시하지 아니하노라
5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수
를 갚아 주리니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
리라.
6 주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
라.
7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
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겠느냐? 비록 그분께서 그들
을 오랫동안 참으시더라도 말이다.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속히 그들을 원수 갚으
리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
냐?
9 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
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
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11 바리새인은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
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강탈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드립니다."
12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도 없고, 도리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
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
니라.
15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의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
짖더라.
16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
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18 그러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
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뿐이니
라.
20 너는 계명을 아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1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
부터 지켜왔습니다."

22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
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
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3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매
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24 예수께서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25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26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27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사람에게는 불가능
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
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9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
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없느니라
30 현세에서 여러 배나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내세
에서는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1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
다. "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인자
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다.
32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을 것임이요
33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4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
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35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36 그리고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물
으셨습니다.
37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말하
였다.
38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
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39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히 있으라고
하였으나 그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라
40 예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41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얻게 하옵소서.
4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눈을 뜨라 네 믿음이 너
를 구원하였느니라.
43 그러자 그는 곧 시력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예수를 따라갔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
양을 돌렸다.

제 19 장

1 예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2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
었고 부자였다.
3 그는 예수께서 누구인지 보고자 하였으나, 키가 작으
시므로 군중 때문에 볼 수 없었다.
4 그래서 그는 앞서 달려가서 그를 보려고 무화과나무
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길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
니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시매 눈을 들어 그를 보시고 이
르시되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라
6 그러자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였
다.
7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다 투덜거리며 이르되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갔구나 하더라.
8 그러자 삭개오가 일어나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의 물건을 거짓 고발로 빼앗
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
렀으니 이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10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
이 오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나리라
생각하였음이더라.
12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13 그리고 그는 자기 종 열 명을 불러서 열 파운드를 주
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해라"고 말했습니다.
14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 뒤로 전갈
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니라
15 그리고 그가 왕국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는 돈을 준
종들을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장사
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
다.
16 그러자 첫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님,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차지하라 하니라
18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인님, 당신의 한 므나가 다
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그리고 그는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도 다
섯 고을을 다스리라."
20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님, 보십시오. 여기
에 당신의 은화가 있습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1 내가 당신을 두려워한 것은 당신이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22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 입에
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
았고,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내가 뿌리지 아니
한 것을 거두었느니라.
23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두지 않았느냐?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과 이자를 요구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24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
그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 열 돈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
라."
25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님, 그가 열 파운드를 가지
고 있나이다.)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있는 자에게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
다.
27 그러나 나의 왕권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
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28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앞서 가셔서 예루살
렘으로 올라가셨다.
29 예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시니 곧 올
리브산이라 하는 산에 이르러서 제자 둘을 보내시니
30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
면 아직 사람이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요.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기를, 왜 그를 잃어버렸느냐
고 하면,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그를 필
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32 그리고 보내진 사람들은 가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를
발견했습니다.
33 그들이 새끼 나귀를 풀어 주자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새끼 나귀를 풀어 주느냐?"
34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나이다 하니
라
35 그들은 그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옷을 새
끼 나귀 위에 얹고 예수를 그 위에 태웠다.
36 그가 가실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펼쳤
다.
37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어, 곧 올리브 산의 내리막
길에 이르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라.
38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찬송받으소서 하
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39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
하였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40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히 있으면 돌
들이 곧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 그가 가까이 이르러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위
하여 울며
42 이르시되, 네가 오늘날이라도 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네 눈에 숨겨
져 있구나.
43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토루를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가두어 둘 날이 임할 것이요
44 그리고 네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네 자손들을 땅과 맞
붙이리니, 네게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돌보심을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45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파
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시작하셨다.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로다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
느니라 하시니라
47 그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수장들은 그를 멸하려고 하였으
나
48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군중이
모두 그의 말씀을 듣는 데 매우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
니다.

제 20 장

1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
을 전파하시던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
과 함께 예수께 와서
2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에게 이 권한을 준 이는 누
구냐?
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 나도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4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서 왔는가?
5 그리고 그들은 서로 논쟁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는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
느냐?' 하고 말할 것이요.
6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온 백
성이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이 선지자
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무슨 권한으
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9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
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임대
해 주고 먼 나라로 오랫동안 갔다.
10 그 때가 되자 그는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포도원
에서 난 열매를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
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1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도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은 그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13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그를 보면 존
경할지도 모른다."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상속자니 가서 그를 죽여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니라

15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
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
습니까?
16 그는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
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하느님께서 금
하시리라.
1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건축자들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무슨
뜻이뇨
18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누
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19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손을 대
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
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향해 말씀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 그들은 그를 감시하다가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정
탐꾼들을 보내어 그의 말을 붙잡아 총독의 권세와 능력
에 넘기려고 하였느니라.
21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며 아무의 얼굴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진실로 가르치
시는 줄을 아나이다.
22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허용되는
가, 허용되는가?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활함을 아시고 그들에
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4 나에게 한 푼을 보여 주십시오. 누구의 형상과 명문
이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카이사르
의 것입니다.
25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그러므로 카이
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
님께 드리십시오."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붙잡을 수 없었고 그
의 대답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7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
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니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어
떤 사람의 형이 아내가 있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은
아내를 맞아들여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도록 했습니
다.'
29 그러므로 형제가 일곱이 있었는데, 맏형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자녀 없이 죽으니라.
30 둘째 남자도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 자식 없이
죽었다.
31 그리고 셋째가 그 여자를 데려갔고 일곱 사람도 마
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를 두지 못하고 죽었다.
32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면 부활 때 그녀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
느냐?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느니라.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
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나니
35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합당
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 아니하고 시집가지 아
니하느니라
36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은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
기 때문입니다.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곁에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38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시니 모든 사람이 그에게 살아 있느니라
39 그러자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40 그 후에 그들은 감히 그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
였습니다.
4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42 다윗은 시편에서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44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으니 어찌 다윗의
아들이냐?
45 그러자 예수께서 온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제자들에
게 말씀하셨다.
46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
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47 과부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제 21 장

1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금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 그리고 그는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두 렙돈
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3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
이 넣었느니라.
4 이들은 다 자기의 넉넉한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
렸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생계를 넣었느니라.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장식되
어 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하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
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날이 이르리라.
7 그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
떤 표적이 있을 것입니까?
8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속지 않도록 주의하
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
고 말할 것이요, 그 때가 가까왔다. 그러므로 그들을 따
라가지 말라."
9 그러나 전쟁과 소요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
십시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끝
은 곧 오지 않습니다.
10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
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11 또한 곳곳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요,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요,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을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이 너희에게 손
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내 이름을 위
하여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13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대답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정하라.
15 내가 너희에게 입과 지혜를 주리니, 너희의 모든 대
적자가 이를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16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
이요, 너희 중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17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18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19 너희는 인내로써 너희 영혼을 얻으라.
20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 황폐
함이 가까운 줄 알라.
21 그러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피하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가라.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
로 들어가지 말라.
22 이 날들은 모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
수의 날들이니라.
23 그러나 그 날에는 아이를 낳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
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
이요,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
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5 해와 달과 별에 표적이 있을 것이요, 땅에서는 민족
들이 혼란과 함께 곤경에 처할 것이요,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을 것이요,
26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땅에 임할 일들을 생각함
에 약해질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27 그러면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 속에서 권능과 큰 영
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왔기 때문이다.
29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 무
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이제 꽃이 돋아나니 너희가 보고 스스로 아는즉 여
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알느니라.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리라.
34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걱정으로 무
거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그러면 그날이 뜻밖
에도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35 그것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36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이
장차 일어날 때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
37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38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

제 22 장

1 무교절이 다가왔는데, 이는 유월절이라 불립니다.
2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였다.
3 그때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불리는 유다
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4 그리고 그는 가서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예
수를 어떻게 팔아 넘길지 이야기했습니다.
5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6 그는 약속하고, 군중이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배
반하여 넘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7 그러고 나서 무교절이 왔고,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습
니다.
8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
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으라 하시니라
9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
하십니까?"
10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보라, 너희
가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11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당신
에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냐?'고 물으셨소.'
12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가구가 비치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여라.
13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더라.
14 때가 되자 예수께서 앉으셨고, 열두 사도도 그와 함
께 앉았습니다.
1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고난
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17 그리고 그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말씀
하셨습니다. " 이것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어 먹어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
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
니하리라.
19 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20 저녁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너
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21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느니라.
22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나니 그를 팔아넘기는 그 사
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23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서로 물었습니다.
24 또한 그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 것인
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방인들
의 왕들은 이방인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이
방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린
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아야 하고, 가장 높은 자는 섬기
는 자와 같아야 한다.
27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냐, 섬기는 사람이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
으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28 너희는 내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나와 함께 있어 준
자들이니라.
29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
희에게 왕국을 정해 주노라.
30 이는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
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왕좌에 앉게 하려
함이니라.
31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청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네 믿음이 떨
어지지 않기를 위함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
을 굳건하게 하려 함이라.
33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가고 싶습니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35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갑과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당신들에게 부족
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
었습니다.
36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그러나 이
제 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배낭도
그렇게 하라. 칼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말씀이 아직 나에
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는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는 나에 관한 일이 끝이 있기 때
문이라.
38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 칼 두 자루가 있나
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하니
39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랐더라.
40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
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니라
41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돌 하나 떨어진 곳으로 물러가
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
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3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44 예수께서 고뇌에 잠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45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46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왜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47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무리가 나타났고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입맞추려고 하였다.
48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49 주위에 있던 자들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예수
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겠습니까?"
50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51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까
지 참으라. 그리고 그는 그의 귀를 만져서 그를 고쳐주
셨다.
52 그러자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르시되 너희가 도둑을 잡으
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을 때에는 너
희가 나에게 손을 뻗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니라.
54 그러자 그들은 그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다.
55 그들이 회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을
때,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다.
56 그런데 어떤 하녀가 그가 불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
고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57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
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58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무리에 속하노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이여 나
는 아니로다 하니라
59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자신 있게
확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노라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는 알지 못하노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61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
로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62 베드로는 나가서 몹시 울었다.
63 예수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때렸습니
다.
64 그들은 그의 눈을 가린 뒤 그의 얼굴을 때리며 "예언
해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은 누구냐?"하고 물었다.

65 그리고 그들은 그 밖에도 그를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66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모여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67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는 그
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는 믿지 않
을 것이다.
68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
를 놓아주지 아니하느니라.
69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을
것입니다.
70 그러자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
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너희
는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
7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또 무슨 증거를 더 필요로 하
리요 우리가 그의 입에서 직접 들었노라 하니라

제 23 장

1 그러자 온 무리가 일어나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2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했습니다. "
우리는 이 사람이 국민을 미혹하고 카이사르에게 조세
를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이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빌라도가 그에게 물으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그렇게 말하노라.
4 그러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습니다.
5 그들은 더욱 사나워서 말하였다. "그는 온 유대 지방
에서 가르치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사
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6 빌라도는 갈릴리에 대하여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
람이냐고 물었다.
7 그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8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
안 그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많은 이야
기를 들었고, 또한 그가 행하는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여러 말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0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맹렬히 고소하였다.
11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12 같은 날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전
에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서
14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
를 심문하였으나 너희가 그를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5 그럴 수 없고 헤롯도 그럴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그에
게 보냈다. 보라, 그에게는 죽을 만한 일이 하나도 행해
지지 않았다.
16 그러므로 나는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17 (이는 그가 절기 때마다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8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
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옵소서 하니라
19 (도성 안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20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
들에게 말하였다.
21 그러나 그들은 소리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
가에 못 박으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22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는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저는 그에게서 죽음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겠습니다."
23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즉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
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제사장들의 소
리가 이겼습니다.
24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25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를 그들이 요
구한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
니다.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 중에 시골에서 오는 키레
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
워 예수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그러자 많은 무리와 여자들의 무리가 그를 따라갔는
데 그들도 그를 애통해하며 슬퍼하였다.
28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29 보라, 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기
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
는 배와 젖을 먹여 본 적이 없는 젖가슴이 복이 있다' 하
리라.
30 그러면 그들은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고 말
할 것이며, 언덕에게 "우리를 덮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31 푸른 나무에 이런 일을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
게 되겠는가?
32 또 그와 함께 사형을 당하려고 끌려온 다른 두 죄수
도 있었습니다.
33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은 골고다라 하는 곳이
라.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범죄
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못 박았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
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옷을 쪼개어 제비를 뽑
았다.
35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관원들도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
36 또 군인들도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다가가 식초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38 그리고 그의 위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
다.
39 또 교수형에 처해진 죄수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모욕
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0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어 이르되, 네가 같
은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을 받
는 것이니 이는 마땅한 일이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
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2 그가 예수께 이르되 주님,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
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 때는 오후 여섯 시쯤 되었고,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오
후 아홉 시까지 이어졌습니다.
45 그러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
어졌습니다.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
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 백부장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
되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로다 하니라
48 그 광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보
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49 그러자 예수의 모든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50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참모였고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51 (그는 그들의 의견과 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유대인의 성읍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53 그는 그것을 내려서 아마포로 싸서 돌로 판 무덤에
안치하였는데, 그 무덤은 전에 사람을 묻은 적이 없는
곳이었다.
54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55 갈릴리에서 그와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서 무덤
을 보고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보았다.
56 그들은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제 24 장

1 이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그들은 준비한 향료와
다른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습니다.
2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들이 들어갔더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4 그들이 이 일로 몹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니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더라.
5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있
는 자를 찾느냐?"
6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느니라 갈릴리
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 이르시되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
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8 그들은 그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9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전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었다.
11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에게 헛된 이야기로 여겨졌
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12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난 일을 생각
하며 속으로 기이히 여기며 떠났다.
13 그런데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육십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14 그리고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16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
였더라.
17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너희가 길을 가
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슬퍼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18 그 중의 한 사람인 클레오파라 하는 사람이 대답하
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외국인으로만 머물러 있
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19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입니
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
한 선지자였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1 그러나 우리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 외에도 오늘은 이 모든 일
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22 또한 우리 무리 중에 이른 아침에 무덤에 도착한 어
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23 그러나 그들은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와서 천사
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살아 계시다고 하더군요.
24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
니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25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둔
한 자들아.
26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
어가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27 그리고 그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글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8 그들이 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려고 하셨다.
29 그러나 그들은 그를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물러라. 저녁이 되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
이라.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갔다.
30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는 동안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31 그러자 그들의 눈이 뜨여 그를 알아보았고 그는 그
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32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
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였던가?"
33 그들이 그 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34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
셨다 하니라
35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빵을 떼실 때 그가 알려지신 일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6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37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38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39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
과 뼈가 있느니라.
40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습니다.
41 그들이 아직도 기뻐서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42 그리고 그들은 구운 생선 한 조각과 벌집 한 조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43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르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45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으니
46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이렇게 기록되어 있
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47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하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야 했습니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49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50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51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그
들과 헤어지시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2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53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
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요한 복음

제 1 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
며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 이와 같은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
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
습니다.
5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
하였느니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었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
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9 그것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습
니다.
10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
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11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 사람들은 그분
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 그러나 그를 영접한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
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말
한 이는 이 사람이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니라 하니라
16 그의 충만하심에서 우리가 다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18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 품속
에 계신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묻자, 요한이 기
록한 내용은 이러하다.
20 그러자 그는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시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하니라
21 그들이 그에게 물으니, 그러면 뭐요? 당신은 엘리야
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오. 당신이 그 선지자요? 그
가 대답하되, 아니요.
22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우
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
라."
24 그런데 보내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자들이
었다.
25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물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
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느냐?"
26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이 서 계시니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서시는 분이시니, 나
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바라
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하니라
30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서시
는 분이시니 이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31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
나게 하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왔노라
32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
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머물렀노라 하
니라
33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
를 보내신 이가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라
하셨느니라.
34 그리고 나는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
였습니다.
35 이튿날에도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는
데,
36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는 말하였다. "보
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37 두 제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38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
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이
르되, 랍비여, (이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로,) 어디에 사
시나이까?
39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보라. 그들은 와서
그가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머물렀다. 왜
냐하면 그때는 십시경이었기 때문이다.
40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의 친형 시몬을 만나서 이르되 우리
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
도라.
42 그리고 그는 그를 예수께 데려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돌이라는 뜻이다."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
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44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새다 사
람이더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르되 우리가 모세가 율
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한 그이를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라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요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48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
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
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은 하
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서 너를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제 2 장

1 그리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
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2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결혼 잔치에 초대되
었습니다.
3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니, 예수의 어머니
가 그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나이다.
4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와 무
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다.
5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6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두세 개의 항아리씩 들어 있
었습니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
라. 그들이 가득 채웠다.
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꺼내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
져갔습니다.
9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으나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그러나 물을 길던 하인
들은 알았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다.
10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
도주를 내놓고, 취한 뒤에는 더 나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보관해 두었군
요."
11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
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
었느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 아니하였다.
13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왔으므로 예수께서 예루
살렘에 올라가시니
14 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돈 바
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15 그리고 그는 작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상을 뒤집어엎으셨습니다.
16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7 그러자 그의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
를 삼켜버렸습니다"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18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
겠소?"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20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소?"
2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
신 것이니라.
22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
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23 유월절과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으므로 자기를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느니라
25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아니하였으
니 이는 그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 3 장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
인의 관원이요
2 그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
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
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
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8 바람은 자기의 뜻대로 불매 너는 그 소리를 들으나 어
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
람도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
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12 내가 세상적인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
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뿐이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느니라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되 믿지 아니하
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음이니라. 이는 자기 행
위가 악하였기 때문이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
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니라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졌음을 나타내려 함
이니라
22 이 일 후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세례를 베풀었다.
23 요한도 살렘 근처의 애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24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
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요단 강 저편
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던 분, 곧 당신이 증거하신 분이
세례를 주시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옵니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
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고 한 것을 너희가 증언하노라.
29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요,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
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느니라.그러므로 나의 기
쁨은 충만하도다.
30 그는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31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 속
한 분은 땅에 속하여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32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없느니라.
33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을 인장으로 인정하였느니라.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니 하
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35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
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4 장

1 그러므로 주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주
었으나)
3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4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5 그때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성읍에 이
르시니, 이 성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
에 있더라.
6 이제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
수께서 여행에 지쳐서 우물 위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시쯤이었습니다.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 물을 좀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도시로 떠났습니다.)
9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유대
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
느니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
물을 알았더라면, 또 네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니라.
11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물을 길어올릴 도
구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12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가요?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자
녀들과 가축들도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14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 그 여자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
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기 와서 물 길으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
러 오라 하시니라.
17 그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노라. 예
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말하였도다, 나는 남편이 없
노라.
18 네가 남편 다섯을 두었으나 지금 네게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은 참되도다.
19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당신이 선지자이
신 줄 압니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
다.
2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
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
을 경배하노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니라.
23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고 지금이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5 그 여자가 예수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
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리이다.
26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27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가 그 여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
는가?" 또는 "왜 그 여자와 이야기하시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28 그러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
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해 준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30 그러자 그들은 성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니라.
32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너희
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33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그분께 먹
을 것을 가져다드렸는가?"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아직 넉 달이 남았으니 추수할 때가 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
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만큼 희어졌느니라
36 거두는 자는 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
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
려 함이니라
37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되니,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
람은 거둔다.
38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라고 보냈
노라.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느니라.
39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 때
문에 예수를 믿었으니,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행한 모
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였기 때
문이다.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
라고 간청하니 예수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41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많
아졌느니라
42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의 말
씀을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
문입니다."
43 이틀 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
니라.
44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
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느니라.
45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도 명절에 갔었더라.
46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는데, 거
기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
니다.
47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
고 예수께 가서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죽게 되셨기 때
문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청하
였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표적
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그 귀족이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
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 느니라.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
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느니라.
51 그가 내려가려고 할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나이다 하니라
52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그가 고침을 시작한 시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곱째 시에 열이 내렸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 있다" 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제 5 장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에 올라가셨느니라.
2 예루살렘에는 양 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
습니다.
3 그 안에는 몸이 허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절름발
이들, 말라빠진 사람들이 많이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어느 특정한 때에 한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뒤흔들
었는데, 물이 뒤흔든 후에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은 무
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
5 거기에는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아 온 사람이 있었습
니다.
6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랫동
안 병들어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을
것이냐 하시니라
7 그러자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흔들릴 때 저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
다."
8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
어가라 하시니라.
9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다녔습
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0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
늘은 안식일이요 네가 침상을 나르는 것은 옳지 아니하
니라.
11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
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물으니, "네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13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
하였다. 예수께서 이미 떠나가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
이 있었으므로.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
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네게 닥치리라 하시니라
15 그 사람은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분이 바
로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였고, 그가 안식
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
다.
17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아버지께
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였습
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
셨기 때문입니다.
19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
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
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
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
는 모든 일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
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같이 아들
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
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23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
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
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지금이니라 듣는 자
는 살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심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자기 속에 있게 하셨으니
27 또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28 이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29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듣는 대로 판
단합니다. 내 판단은 의롭습니다.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31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또 계시니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참됨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는 진리를 증거하
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오
직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이것을 말하노라
35 그는 타오르고 빛나는 빛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동
안 그의 빛 안에서 기뻐하고자 하였느니라.
36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
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
기 때문이다.
37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
느니라. 너희는 어느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
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38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니라
39 성경을 연구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로 생각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
라.
40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아
니하느니라.
41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42 그러나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아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나를 영
접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
면 그를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그는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제 6 장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를 건너가시니라.
2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4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겠느냐?
6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7 빌립이 대답하였다.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는 그들이 각자 조금씩 받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8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에게 말하였다.
9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10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히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 천 명이었다.
11 예수께서 빵을 가져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모아 아무 것도 없어지지 않게 하라 하시니라
13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모아서 먹고 남은 보리빵 다섯 개 조각으로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14 그러자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16 저녁이 되자 그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다.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리고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18 그러자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일어났습니다.
19 그들이 약 25~30 스리드롱을 노를 저어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20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1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그를 배 안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거기에는 다른 배가 하나도 없고, 다만 제자들이 탄 배만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떠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3 그러나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들이 떡을 먹던 곳에는 티베리아스에서 다른 배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24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없음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25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랍비,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니라
27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28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3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무슨 표적을 보이시나이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32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34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주님,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41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께 불평하였다.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42 그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43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
희끼리 원망하지 말라.
44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
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를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내게로 온다.
46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48 나는 생명의 떡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느니
라.
50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다. 누구든
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
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
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
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55 내 살은 참으로 음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
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여러분의 조상
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는 다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
당에서 하신 말씀이니라
60 그러므로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
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니라
61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 말씀에 대하여 투덜거리는
줄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
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2 만일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내
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예
수께서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이며, 누가
자기를 배반할 것인지 아셨느니라.
65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
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67 그러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
도 가려느냐?"
68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
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
다.
69 우리는 당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7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
귀가 아니냐?"
71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가리
옷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제 7 장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 지역에
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2 이제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3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
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4 은밀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는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5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6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 때는 아
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7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느니 이
는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함이니라
8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
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음이니
라.
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
러 계셨다.
10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그도 명절에 올
라갔으나 공개적으로는 아니하고 비밀리에 올라갔느
니라.
11 그 때에 유대인들이 명절 중에 그를 찾아와서 이르
되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라
12 그러자 백성 가운데 그에 대하여 많은 불평이 있었
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였
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는 백성을 속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였다.
14 명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서 가르치셨다.
15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
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 수 있을까?"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18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니,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
에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다니느냐?
20 그러자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귀신이 들렸구
나. 누가 너를 죽이려느냐?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느니라.
22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니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니라
23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였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나에게 노하느냐?
24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
하십시오.
25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였
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냐?"
26 그러나 보라, 그는 담대히 말하되 그들은 그에게 아
무 말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통치자들이 이 사람이 바
로 그리스도인 줄을 과연 아느냐?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
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느니라.
28 그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이
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아
노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29 그러나 나는 그를 압니다. 나는 그에게서 왔고 그는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30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그리
스도께서 오시면 저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
을 행하실까요?"
32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투덜거
리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잡으
러 경비병들을 보냈다.
33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너희
와 함께 잠시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
이다."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으리라.
35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어디로 가
면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인가? 그가 이방인들 사
이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
가?"
36 그가 이르되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하여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으리라 한
것은 무슨 말인가?
37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
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배
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니라.
39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
셨음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음이
니라)
40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이다"라고 말하였다.
41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고 하였고, 어
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하였습니다.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3 그래서 그 때문에 백성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44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45 그러자 관리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
서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46 관리들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습니다."
47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였다. "너희도 속았느
냐?"
48 통치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
냐?
49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50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는 밤에 예수께
찾아온 자 중에 한 사람이라)
51 우리의 율법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가 행한 일
을 알기도 전에 먼저 그를 심판합니까?
5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찾
아보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아니하
느니라.
53 그리고 각 사람이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8 장

1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2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온 백
성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예수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가
르치셨다.
3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그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4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
하였지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를 시험하여 고소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

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마치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시는 듯하였다.
7 그들이 계속 묻자, 그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8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9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가장 나
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하나씩 나
가고 예수만 남았고,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시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
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
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12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아
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네
자신을 증거하고 있으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구
나."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되 내 증거는 참되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로 가는지 알 수 없느니라
15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그러나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
가 함께 있음이니라
17 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
되어 있느니라.
18 나는 나 자신을 증거하는 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께서도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19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
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금고에서 이 말씀
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1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내 길을 가고,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 죄 가운데
서 죽을 것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
라."
22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자살하려는
것입니까? 그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아
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
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니라.
25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
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26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
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내가 그분께 들은 것을 세상
에 말하노라.
27 그들은 그가 아버지에 관하여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8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인
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 사람임을 알리요, 또 내
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함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께서 나
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
하시는 일을 행함이니라
30 그가 이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
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
롭게 할 것이다.
33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은 어찌하여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진실로 진실로 너
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
하느니라.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
로 자유로울 것이요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너
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
이 없기 때문이라
38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
지께 본 것을 행한다.
39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
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였으리
라.
40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아브라함
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위를 행하느니라. 그들이 그
에게 이르되,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우
리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
버지이셨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내가 하
나님에게서 나와 왔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
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43 너희가 내 말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정
욕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 안
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에게 진리가 없음이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기의 말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
짓말장이요 그 아비임이니라

45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
니하느니라.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확신시키느냐? 내가 진실
을 말하면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48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이까?
4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나는 귀신에게 쫓기지 아니
하노라.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욕되
게 하느니라."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구하시고 판단
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는 당
신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
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이르되,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
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
리고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자신을 누구로 만들느
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공경하면 내
공경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나를 공경하시는 분은 내 아
버지시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
라.
55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를 아
노라 만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
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느니
라.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5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9 그러자 그들은 돌을 집어 예수에게 던지려고 하였으
나 예수께서는 몸을 숨기고 성전에서 나가시며 그들 사
이를 지나가셨다.

제 9 장

1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2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
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에게
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4 나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느니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6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7 그에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
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
는 가서 씻고 시력을 회복하고 왔다.
8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그가 눈먼 사람인 것을 전에
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였다.
9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
람들은 그가 그와 같다고 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
이라고 하였습니다.
10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11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기름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시력을 얻었습니다."
12 그들이 그에게 물으니,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
하되, 나는 모릅니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
려왔다.
14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었다.
15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시력을 얻었는
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눈
에 진흙을 바르셨고, 나는 씻었고 봅니다.
16 그러므로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죄인인 사람
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 사
이에 분열이 있었다.
17 그들은 다시 눈먼 사람에게 말한다. "그가 당신의 눈
을 뜨게 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
까?" 그는 말한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18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의 부모를 불러서
보게 하였습니다.
19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
신들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들은 눈먼 채로 태어났
다고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
습니까?"
20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줄을 아노라 또 그가 맹인으로 태
어났음을 아노라
21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
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미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
도라고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합의했기 때문
이다.
23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
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24 그러자 그들은 눈먼 사람을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임을 압니다."
25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26 그들이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
을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나요?"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거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28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은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29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
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너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가 내 눈
을 뜨게 하였으니라.
31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
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아노라.
32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소문이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것도 행하실 수 없으리로다.
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니 그들이 그를 쫓아
내니라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
고 그를 만나시어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
느냐?
36 그러자 그는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
이신가요? 제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네가 그를 보았고, 너
와 말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다."
38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
고 그는 그를 경배했습니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
려 함이요,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40 그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께 이르되 우리도 눈먼 자냐?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었더라
면 죄가 없었으리니 그러나 지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 10 장

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니라.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
성을 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
해 낸다.
4 목자가 자기 양 떼를 내어놓을 때에는 앞서 가고 양들
은 그를 따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5 그들은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
리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함이니라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7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진실
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요. 그러나 양
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목초지를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12 그러나 품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것이 아니므
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는 양을 잡아가고 흩어 버리느니라.
13 품꾼은 달아난다. 그는 품꾼이어서 양을 돌보지 아
니하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립니다.
16 내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으
니,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와 한 목자가 되리라.
17 이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
18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나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것을 버릴 권능이 있고 다시 받을 권
능이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19 그러므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
열이 생겼습니다.
20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르되 그는 귀신이 들려 미
쳤으니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더라.
21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22 예루살렘에는 봉헌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때는 겨울
이었다.
23 예수께서 성전 안의 솔로몬 행랑을 거닐고 계셨다.
24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에게 말했습니
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
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내가 너희에게 말
하였어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
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느니라."
26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
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31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중
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
33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
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
이요, 네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너희 율법에 '너희
는 신이다' 하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냐?
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들을 신이라 불렀으니 성경
은 폐할 수 없느니라
36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내
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네가 신성을 모
독한다"고 하느냐?
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38 그러나 내가 그러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더
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
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게 될 것이다.
39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그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느니라
40 그리고 다시 요단 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41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여서 말하였다. "요한은 기적
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
여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42 그러자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를 믿었다.

제 11 장

1 그런데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
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동네 사
람이었습니다.
2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병들었더라.)
3 그러므로 그의 자매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
되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
나이다 하니라
4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
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5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
셨습니다.
6 그래서 예수께서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
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7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
8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얼마 전에 유대
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
이까?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는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
하냐? 누구든지 낮에 행하면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라.
10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그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라.
11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겠노라 하시니라
12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가 잠들
었다면 나을 것입니다."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으
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잠자며 쉬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
하신 줄로 생각하였더라.
14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
로가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쁘노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게로 가자.
16 그 때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 예수께서 오셔서 보니 그가 이미 무덤에 누워 있던
지 나흘이 되었더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 스타디온 떨어진 가까
운 곳이었습니다.
19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빠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였다.
20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
다.
21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께
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지금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23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라
25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리라. 이것을 믿느냐?
27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을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리아는 가서 자기 누이 마리
아를 은밀히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
신다 하니라.
29 그 여자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를 맞은 곳에 계시더라.
31 그때에 집에 그녀와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
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

를 따라가며 말하였다. "그녀는 무덤에 가서 울고 있어요."
32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 예수께서 그 여자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니
34 그리고 물었습니다. "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35 예수께서 울으셨습니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37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38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그것은 동굴이었고, 그 위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우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으니까요.
4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 그러자 그들은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치웠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 아버지,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42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말씀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곁에 서 있는 무리 때문에라 이는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43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44 죽은 자가 나왔는데 손발이 수의로 묶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서 가게 하세요.
45 그러자 마리아에게 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46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47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모아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8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49 그 중에 한 사람 곧 그 해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라 하는 자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도 마십시오.
51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52 그리고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53 그 날부터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5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는 성읍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느니라.
55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왔으므로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56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아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너희는 그가 명절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57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알려 주어서 그를 잡도록 명령하였더라.

제 12 장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2 그들은 거기서 예수께 만찬을 차렸는데, 마르다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3 그러자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4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곧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가리옷이 이르되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6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주머니를 맡고 그 안에 든 것을 훔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7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그냥 두어라. 내가 장사 지내는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두었구나."
8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9 그러므로 유대인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10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11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떠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12 이튿날 명절에 모인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13 그들은 야자수 가지를 가지고 그를 맞으러 나가서 "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외쳤습니다.

14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
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네 왕이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16 이 말씀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
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 말씀을 행한 것이
었음을 기억하였다.
17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음에서 살
리실 때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거하였느니라.
18 그러므로 무리도 예수를 맞으러 나왔으니 이는 그가
이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19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깨닫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도다.
20 그런데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헬라인 사람들도 몇 있었는데,
21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
노라 하니라
22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에게 말하였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2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
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
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하실 것이다.
27 이제 내 영혼이 괴로워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
지여 이 시간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29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듣던 무리는 그것이
천둥소리였다고 말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
게 말했다고 말하였습니다.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는 나로 말미암
아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세상
의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32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
라.
33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어떠한 죽
음으로 죽을 것을 나타내셨느니라.
34 무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
도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
신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인
자는 누구입니까?
35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깐 빛
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라.
어둠 속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
니라.
36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
시고 떠나시어 그들에게서 숨으셨느니라.
37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38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
니, 곧 "주님,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
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39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이르되
40 그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
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없게 하셨
다.
41 이사야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
하였느니라.
42 그러나 고위 관원들 중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이 많
았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음이더라
43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
였느니라.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47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그
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
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48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께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명령해 주셨느니라.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노라

제 13 장

1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2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가리옷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넘겨 주
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
아가는 것을 아시고
4 예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5 그 후에 예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6 그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
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8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결코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
리도 씻겨 주십시오.
10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씻은 자는 발만 씻을 뿐
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
라
11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
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다
시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13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주님이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할 것이다.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고 본을 보였노라.
16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
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아니
하니라.
17 너희가 이것을 아는즉 이를 행하면 행복하느니라.
18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노라 그러나 이는 성
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니 곧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니라
19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함은 그 일
이 일어날 때 너희로 내가 그 사람임을 믿게 하려 함이
니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니라.
22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그가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다.
23 그런데 예수의 품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기대어 앉아 있었다.
24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손짓하여, 그가 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게 하였다.
25 그러자 그는 예수의 가슴에 안겨서 "주님, 누구십니
까?"하고 물었습니다.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한 조각을 적신 후에 주
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한 조각을 적신
후에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가리옷에게 주었다.
27 그리고 그 빵조각을 먹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
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는
것을 빨리 하라.
28 그런데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께서 무
슨 뜻으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더
라.
29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하셨
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더라.
30 그러자 예수께서 그 빵을 받으신 후 곧 나가시니 밤
이더라.
31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을 얻으셨느니라.
32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님
도 자기에게 있어서 그에게 영광을 얻으시리니 곧 그에
게 영광을 얻으시리라.
33 어린아이들아, 아직 잠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
했듯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
라올 것이다.
37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당신을 따
를 수 없는 것은 어찌함이니이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 네 목
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제 14 장

1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
라
2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
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그 길도 아느니라.
5 도마가 예수께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옵나니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사옵니까?
6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
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예수께 이르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
희와 함께 있었거늘 빌립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
여 달라고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네
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
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
라.
12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
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
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라
17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
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18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
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
도 살겠음이니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
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22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이르되 주님, 어
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이런 말을 너
희에게 말하였노라.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
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에게 준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떠나가서 너희
에게 다시 온다고 한 것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
랑하였더라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
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
심이니라.
29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30 이제부터는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의 임금이 오겠고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31 그러나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나도 그
렇게 하노라.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자.

제 15 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라.
2 나에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하시고, 열
매를 맺는 가지는 다 깨끗이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이제 깨끗하여졌느
니라.
4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
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
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
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죽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
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
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
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다.
12 이것이 내 계명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희를 사랑한 것같이 하라.
13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
랑은 없느니라.
14 내가 명하는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노라 종
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 나는 너희를 친
구라 불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었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
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요,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라.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
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
를 미워하였음을 알라.
19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사
람들을 사랑하였을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
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
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21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
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
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 죄를 덮을 변장이 없느
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24 만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
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
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도 미워하였느
니라.
25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
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니라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제 16 장

1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
게 하려는 것이다.
2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참으로 때
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하는 줄로 생각할 것이다.
3 이런 일을 그들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
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은 때가 되
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
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이런 것들
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
이다.
5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데, 너희 중
에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너희 마
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느니라.
7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떠나가
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
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
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9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
니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으나 너희가 지
금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
13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아니
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
14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내 것을 받
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내
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
기 때문이라.
17 그러자 그의 제자 중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
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
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18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였다. "조금만이라고 하니 무
슨 뜻인가?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구
나."
19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한 것을 서로 묻느냐?
20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
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너희는 근심할 것이
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1 여자가 산고를 겪을 때에는 근심하나니 이는 자기의
때가 이르렀음이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
났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24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
25 나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
면 더 이상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 주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
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
니하노라
27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
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었
기 때문이니라.
28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9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지금은 분명
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지요.
30 이제 우리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무도 당
신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고 믿습니
다.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이제는 믿느냐?"
32 보라, 그 시간이 이르고, 참으로 지금 이르렀으니, 너
희가 각자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버려둘 것이
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
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33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 17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
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아들도 아버지
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2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
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
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로다.
3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나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께
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습니다.
5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
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자신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6 나는 당신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
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
께서 내게 그들을 주셨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
켰습니다.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
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
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는 것을 믿었습니다.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은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로 인해 영광을 얻습니다.
11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없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
으며,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
신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들을 나는 지켰고, 그들 중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
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
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나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
니함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나
이다.
16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세상에 속
하지 아니함이라.
17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
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20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
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을 믿게 하옵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
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옵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요,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
로소이다.
24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
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
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세
상 창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음이니이다.
25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
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또 선포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 18 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게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2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3 그러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사람들과 경비병들의 무리를 맞아,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6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습니다.
7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 사람임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두어라.
9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0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치고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스였습니다.
11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12 그러자 유대인들의 무리와 대장과 경비대장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였다.
13 그리고 먼저 그를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14 그런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한 사람이었습니다.
15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또 다른 제자도 따라갔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습니다.
16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17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니라.
18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종들과 관원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19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교리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2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하였고,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으며,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노라."
21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22 그가 이렇게 말하자 곁에 서 있던 경비병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
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내가 악한 말을 하였으면 그 악한 말을 증거하라. 그러나 선한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24 안나스는 예수를 묶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는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아니다."
26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의 친척이 되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이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27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닭이 곧 울었습니다.
28 그때에 그들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른 아침이었고,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들어갔다.
29 그러자 빌라도가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
30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31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2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니, 곧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표명하심이니라
33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인가?"
35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7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내가 왕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38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진실이냐? 하고 묻
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
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그러나 너희에게는 유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
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40 그러자 그들은 모두 다시 소리쳐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제 19 장

1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2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보라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3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며 손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4 그러므로 빌라도는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
보십시오,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함을 당신들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5 그러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보라색 옷을 입고 나
오셨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
다!"
6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보고 소리 질
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
하노라.
7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
으니, 우리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신
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
다.
9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당신은 어디서 왔
소?"하고 물었으나 예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10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놓아
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
면 네가 나를 대적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12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
나 유대인들은 소리쳤다.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
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
라고 하는 자는 카이사르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서 포장도로라 하는 곳에 있는 재판대에 앉았는데, 이
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한다.
14 그 때는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시각은 여섯 시쯤이었
다. 그러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
다!"하고 말하였다.
15 그러나 그들은 소리쳤다. 그를 없애라, 그를 없애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왕이 없습니다.
16 그러자 그는 그를 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갔습니
다.
17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 곧 히
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느니라
18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좌우편에는 한 사람
이 있었고, 예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19 빌라도가 칭호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 글은 '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20 그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예수께
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
21 그러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
노라 쓰라 하니라
22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것이다.
23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몫으로 만들어 각 군인이 한 몫씩 가지고 있
었으며 그의 겉옷도 가지고 있었다. 겉옷은 솔기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었다.
24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
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내 옷을
서로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누이,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가 서 있었습니다.
26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곁
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27 그러자 그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 보라, 네 어머
니시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28 그 후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 내가 목마르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29 그런데 거기에는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
었습니다. 그들은 식초로 해면을 적셔서 히솝에 꿰어
그의 입에 대었습니다.
30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버리시니라
31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
려 있는 것을 막고자,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빌
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내리라고 간청하였다.
32 그러자 군인들이 와서 먼저 못 박힌 사람과 그와 함
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33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 그가 이미 죽은 것
을 보고도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34 그러나 군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
렀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35 그것을 본 이가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되며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
려 함이니라.
36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아
니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었
습니다.
37 또 다른 성경에는 이르되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
를 쳐다볼 것이라 하였느니라
38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
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
져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빌라도는 허락했습니
다. 그래서 그는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39 또 처음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40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
에 따라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쌌다.
41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
습니다.
42 그들은 유대인들의 준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
었습니다. 무덤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제 20 장

1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
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
니다.
2 그러자 그 여자는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
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사람들이 주
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
니다."
3 그러므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나가서 무덤으로 갔
다.
4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
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
니다.
5 그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었
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7 그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싸여 있었습니다.
8 그러자 무덤에 먼저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
습니다.
9 이는 그들이 아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
기 때문이라.
10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그리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
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
습니다. 예수의 몸이 뉘었던 곳입니다.
13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
냐?"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주님을 데
려갔기 때문이요, 그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릅니다."
14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15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왜 울고 있느
냐?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가 정원사인 줄 알고 그에
게 이르되, 선생님, 당신이 그를 옮겨 왔거든, 어디에 두
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데려가겠습
니다.
마리아 에게 말씀하시니 마리아가 돌아서서 그에게 말
씀하시되 라보니라 하니 곧 선생님이로다.
17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
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께로,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18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고 주
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알렸습니다.
19 그 날 저녁 곧 주일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
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
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20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는 그들에게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21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
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
어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너
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그러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디디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
였더라.
25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주님
을 보았노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
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라
26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문들은 닫혀 있었다. " 너희에게 평강
이 있을지어다."
27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
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
는 사람이 되어라."
28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
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2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도 참으
로 많았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있었으니
31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
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가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

제 21 장

1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
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니라.
2 그 자리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디모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고기 잡으러 가
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노라. 그들
이 나가서 곧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
지 못하였더라.
4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 해안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5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습니
다."
6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배의 오른쪽에 그
물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은 그물을 던졌고, 지금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것을 끌
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7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
게 이르되 이는 주님이시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것
이 주님이심을 듣고 어부의 외투를 그에게 두르니 (이
는 그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라) 바다에 뛰어들었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그들은 육지
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거리가 이백 큐빗이었습
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있었습니
다.
9 그들이 땅에 다다르자마자,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
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지금 잡은 물고기
를 가져오너라."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렸는
데, 가득히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렇
게 많은 물고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
지 않았습니다.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
시니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감히 그에게 누구냐 묻지 아
니하니 이는 그가 주님이심을 알았음이더라.
13 그러자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
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세 번째 일입니다.
15 그들이 저녁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
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16 그는 두 번째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
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그에게 말씀하
셨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는 것을 아십니다. 그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
이라.
17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가 세 번째 그에게 말
씀하신 것을 근심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그
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18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을 때
에는 네 손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
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요
19 그는 이렇게 말하여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
고 나서 그는 그에게 "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
20 그러자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
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의 품
에 기대어 "주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
까?"하고 묻던 사람이다.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이르되 주님,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2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
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3 그러자 형제들 사이에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
라는 말씀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24 이 제자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니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됨을 아노라.
25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세상 자체도
기록된 책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 1 장

1 데오필로야, 나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
작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계명을 주신 후에
승천하신 날까지 이러하니라
3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많은 확실한 증거로
써 자기가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사십 일 동
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
느니라
4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
니다. "너희는 나 에게서 들은 바를 따라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며칠 지나지 않
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
르되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
나이까 하니라
7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9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그들의 시야에서 사
라지더라.
10 그들이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똑똑히 하늘을 쳐
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
에 서 있었습니다.
11 또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을 쳐다보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것과 같은 모양으로 하늘로 올라가시
리라.
12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
일 여행 거리였다.
13 그들이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
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젤로테스 시
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었다.
14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썼다.
15 그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
다.(모인 사람의 수는 약 백이십 명쯤 되었다.)
16 형제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자들의 인도자가 된 유
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였습니다.
17 그는 우리와 동등하였고 이 사역의 일부를 맡았습니
다.
18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의 삯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
리고 그는 곤두박질쳐 배가 터지고 내장이 다 쏟아졌습
니다.
19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
데, 그 밭이 그들의 언어로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는 뜻
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20 시편에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의 감독직
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21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던 동안
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은
22 요한의 세례부터 그분이 우리에게서 승천하신 날까
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한 명 있
어야 합니다.
23 그들은 두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도 불리고 다른 하나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이었
고, 다른 하나는 마디아였다.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여 이 둘 중에 당신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
여 주시옵소서
25 유다가 범죄하여 떨어진 이 봉사와 사도직에 그가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6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마티아에게 뽑혔고,
그는 열한 사도의 일원으로 세어졌습니다.

제 2 장

1 오순절이 이르러서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
다.
2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
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이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 그러자 불길과 같은 갈라진 혀가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았습니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
씀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독실
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6 이 소문이 퍼지자 군중이 모여서 소란스러워했습니
다. 각자가 자기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7 그러자 사람들은 다 놀라며 경탄하며 서로 말하였다.
"보시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오?"
8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9 파르티아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
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에 사는 사
람들,
10 이집트의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구레네 근처 리비
야 지방과 로마에서 온 외국인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
교로 개종한 사람들,
11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느니라.
12 그러자 그들은 다 놀라며 의심하며 서로 말하였다. "
이게 무슨 뜻인가?"

13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
해 있다"고 말하였다.
14 그러나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음성을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것을 알고 내 말을 들으라.
15 이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것
이 아니니 이는 지금이 제 삼시이기 때문이라.
16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이니라
17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
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
리라
18 그 날에 내가 내 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내가 위로 하늘에 기사를 베풀고 아래로 땅에 표적
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20 주의 크고 존귀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
고 달이 피같이 변할 것이요
21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
심으로 증거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지에 따라 넘겨졌는데
도 너희가 그를 잡아 악한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
느니라
24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
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노라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
리지 아니하리로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
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안에 거하리라
27 이는 당신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
고,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
니이다.
28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당신
의 얼굴로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리이다.
29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0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
하여 육체에 따라 자기의 허리에서 나는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의 보좌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31 그는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
그의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
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
의 증인이로다.
33 그러므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지시고 아버지께
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이것을 부어 주셨
으니,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
35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라.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
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37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8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
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
어진 것입니다.
40 그리고 그는 다른 많은 말로 증거하고 권면하여 이
르되,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41 그러자 그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
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날에 신도들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
도하는 일에 꾸준히 힘썼습니다.
43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사도들에 의해 많
은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44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유하였
고,
45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물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집집마다 떡
을 떼며 기쁨과 마음의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47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은총을 얻었다. 그
리고 주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
다.

제 3 장

1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9 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
로 올라갔습니다.
2 또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가 된
사람 하나를 사람들이 옮겨다가 날마다 성전의 '아름다
운 문'이라 불리는 문에 두었다. 그리하여 성전에 들어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다.
3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
하니
4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라."
5 그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에게서 무엇인
가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
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7 그리고 그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겼습니다.

8 그러자 그는 뛰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
로 들어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9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
걸을 하고 있던 사람인 줄 알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11 그러자 고침을 받은 절름발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
잡자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으로 달려갔다.
12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마치 우리의 힘과 거룩
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
냐?"
13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광스럽
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를 넘겨주었고, 빌
라도가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를
부인하였습니다.
14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
한 사람을 놓아 달라고 구하였느니라
15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16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니라. 그렇다, 그에게서 나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
에서 이 완전한 건강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7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런 일을 했
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분의 관원들도 그랬습니다.
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고 미리 보여 주신 것
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19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가 지워질 것이요
20 또 그는 너희에게 전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
내시리라
21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
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
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2 모세가 진실로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
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
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들을 것
이라 하였느니라.
23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백
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24 사무엘 때부터 시작하여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
들도 이 날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니라
26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그를 보내어, 여러분 각자를 그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제 4 장

1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2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를 통하여 죽은 사
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근심하였다.
3 그들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
습니다. 이는 이미 저녁때였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자의 수
는 약 5,000 명이었다.
5 이튿날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
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7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하고 물
었습니다.
8 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9 오늘날 우리가 무능한 사람에게 행한 선행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지 조사받는다면,
10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11 이 돌은 너희 건축자들이 멸시하였으나 이제는 모퉁
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어떤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주
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3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을 보고, 그들이 학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고
놀랐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다.
14 그리고 그들은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
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5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게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후에 서로 의논하니
16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리요 저희가 큰 기적
을 행하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
려졌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17 그러나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
록, 우리는 그들에게 엄히 위협하여 앞으로는 이 이름
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18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보
시기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니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위협한 후에야 그들을 풀
어주었다.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22 이 병 고침의 기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마흔 살이 넘
은 사람들이었다.

23 그들이 풀려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일행에게 돌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전하였다.
2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이다
25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왜 격노하며 백성들이 허무한 것을 꾀하는가?
26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관원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27 사실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였습니다.
28 주의 손과 주의 뜻이 미리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옵소서.
29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0 당신의 손을 뻗어 병을 고치시고, 당신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31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32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34 그들 가운데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 물건의 값을 가지고 왔고
35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36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인 요세(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임)는 레위 사람이요 키프로스 지방 사람이더라
37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제 5 장

1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물을 팔아서
2 그리고 값의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를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 그러나 베드로는 이르되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숨기게 한 것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4 그것이 남아 있을 동안은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팔린 후에도 네 힘으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니라.
5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엎드러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6 그러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다.
7 그리고 약 3 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8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땅을 이 가격에 팔았는지 말해 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요."
9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이 주님의 영을 시험하기로 함께 의논했습니까? 보라, 당신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고, 당신을 끌어낼 것입니다.
10 그러자 그 여자는 곧장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메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11 그러자 온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12 그리고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 가운데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들을 찬양했습니다.
14 그리고 주님께로 더해지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남자와 여자의 무리가 많았습니다.)
15 그래서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대와 요에 뉘어 놓았는데,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누구에게는 가리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6 또한 예루살렘 주변 성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17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사두개인파가 다 일어나 분노가 가득하여
18 그리고 사도들에게 손을 얹어 일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삶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라.
21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의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원 전체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22 그러나 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감옥에서 찾지 못하자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23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감옥을 안전하게 닫았고 경비병들이 문 밖에 서 있었으나 문을 열고 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구나.
24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디로 확대될지 의심하였습니다.
25 그러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 그러자 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7 그들이 그들을 데려와서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으니라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느니라.
29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왕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2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33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34 그러자 의회에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 온 백성에게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조금 거리를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35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조심하십시오.
36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에게 약 사백 명 정도가 합류하였으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에게 복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37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가 세금 징수 때에 일어나 많은 백성을 끌어내어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였고 그에게 복종하던 자들은 다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사상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허사가 되리라
39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니이다.
40 그러자 그들은 동의하여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41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 앞에서 물러갔다.
42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6 장

1 그 무렵 제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2 그러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모아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에 앉아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니라.
3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정직한 평판이 있는 사람 일곱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은 그들입니다.
4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에서 온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니
6 그들은 그를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7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퍼져 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습니다.
8 스데반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9 그러자 리베르티노와 키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였다.
10 그들은 그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11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였다. "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2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잡아 공의회에 끌고 왔다.
13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쉬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14 우리는 그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5 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7 장

1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2 또 이르되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여 들으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는 그가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
3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본토와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4 그 후에 그는 갈대아 땅에서 나와서 하란에 거주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자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발 디딜 곳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그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6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씨가 낯선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 그들에게 악을 베풀 것입니다.
7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종살이할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8 아브라함은 할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족장을 낳았습니다.
9 그리고 족장들은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10 그리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에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안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11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닥쳐 큰 환난이 닥쳤고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12 그러나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13 두 번째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고,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습니다.
14 그러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친족 일흔다섯 명을 불러 모았다.
15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으니 그와 우리 조상들도 죽으니라
16 그들은 시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시켐의 아버지 엠모르의 아들들에게서 돈으로 산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17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매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느니라
18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19 그는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대하였고, 우리 조상들에게 악을 행하여 어린 자식들을 쫓아내어 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 그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매우 아름다웠으며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되었습니다.
21 그가 쫓겨난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기르니라.
22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며 말과 행동이 강했습니다.
23 그가 마흔 살이 되자 그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24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변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25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26 그 다음날 그는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나타나서 다시 화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형제인데 왜 서로 해를 끼치십니까?"
27 그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자는 이웃을 밀어내며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29 그러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
30 사십 년이 지나자 주의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속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31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매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니라
32 이르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니 모세가 떨며 감히 보지 못하더라.
33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나는 보았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이제 와서, 나는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35 그들이 거절하며 말하던 이 모세는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으로 그를 관원과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36 그는 이집트 땅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37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자라.
38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천사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으며,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생생한 신탁을 받았던 자입니다.
39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쫓아내고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40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으나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41 그 당시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42 그러자 하느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하늘의 만상을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짐승과 제사를 내게 바쳤느냐?"
43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렘판의 별을 숭배하려고 만든 형상으로 삼았구나.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 가리라.
44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그가 본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신 대로 하였더라.
45 그 후에 온 우리 조상들도 예수와 함께 이방인들의 소유로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우리 조상들보다 먼저 몰아내사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46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마련하고자 원하였더라.
47 그러나 솔로몬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이르되

49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
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나의 안식처는 어디냐?
50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
는 항상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과 같이 너희도 행하느니라.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
하였느냐? 또 의인이 오심을 전에 전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이제 그 의인을 배반하고 살해하였느니라.
53 천사의 처분으로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아니하였
느니라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
았다.
55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똑바로 쳐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56 이르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시니라
57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귀를 막고 일
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58 그를 성 밖으로 내쫓고 돌로 쳤다. 그리고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깔았다.
59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 주소서.
60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
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
렇게 말하고 잠이 들었다.

제 8 장

1 사울은 그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당시에 예
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들을 제
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에 흩어
졌다.
2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의 무덤으로 옮겨가서
그를 위하여 큰 애도를 드렸습니다.
3 사울은 교회를 잔혹하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4 그러므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였다.
5 그러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
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6 그러자 군중은 빌립이 하는 말을 한마음으로 따랐습
니다.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7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많은 사람에게서 나
갔고, 마비 환자와 절름발이가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8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9 그런데 그 성읍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는 옛날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홀리고 자
기가 큰 자라고 자랑하더라.
10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그의 말씀을 듣
고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더라.
11 그들은 그를 존경하였으니,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에 관하여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와 여자가
다 세례를 받았다.
13 그러자 시몬 자신도 믿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과 함께 지내며 기적과 표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
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15 그들이 내려오매 성령을 받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
하니라
16 (아직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였
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더라.)
17 그러자 그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18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19 이르시되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신을 받게 하라 하시니라
20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
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당신
의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21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몫도 없고 분깃도 없나니 이
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아니함이니라
22 그러므로 네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만일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말이다.
23 내가 보니 너는 쓴맛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여 있구
나.
24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 나를 위하
여 기도하여 너희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라.
25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
렘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
음을 전파하였습니다.
26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
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27 그가 일어나서 가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
물을 맡은 큰 권세를 가진 환관으로, 예배하러 예루살
렘에 온 자라.
28 돌아가면서 병거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
라.
29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
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세요."
30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읽는 것을 알아들었습니
까?"
31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
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빌립에게 올
라와서 자기와 함께 앉기를 청했습니다.
32 그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러하니, 그는 도살장으
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33 그의 굴욕으로 그의 공의가 빼앗겼으니, 그의 세대
를 누가 선언하리요?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음이니
라.
34 그러자 환관이 빌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자기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35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같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파하였다.
36 그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니 내시가 이르
되 보소서 여기에 물이 있나이다 내가 세례 받는 데 무
슨 방해가 있사옵니까?
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 그리스
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38 그리고 그는 병거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
으므로 환관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그는 기뻐하
며 길을 떠났다.
40 그런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성읍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마침내 카이사레아에 이르렀다.

제 9 장

1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육
의 기색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2 그리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그에게
요구하였다. 이는 그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
도였다.
3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연히 하
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4 그는 땅에 엎드려서 음성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
습니다. "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5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박해하는 예수
입니다. 가시에 발로 차는 것은 당신에게 힘듭니다.
6 그는 떨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
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
니다. "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
야 할지 알려 줄 것이다."
7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
었습니다. 음성은 들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아 다메섹으로 데
려갔다.
9 그는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
습니다.
10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
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그리고 그는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11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길로 가서 유
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12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되찾게 하는 것을 보았다.
13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 사람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14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
는 모든 사람을 묶어 놓을 권한을 받았습니다.
15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는 내가 택
한 그릇이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
름을 전할 것이니라
16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 주리라.
17 아나니아가 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이르되 사울 형제여,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
수께서 나를 보내어 네가 다시 보게 하고 성신으로 충
만하게 하셨느니라.
18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곧 떨어져 나갔
고 그는 즉시 시력을 되찾아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19 그가 음식을 먹은 후에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
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
니다.
20 그리고 그는 곧장 여러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21 그러나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
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묶어 대제
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인들을 당황하게 하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다.
23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
려고 의논하였다.
24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
들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25 그러자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리고 가서 바구니에
담아 성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매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니
라. 그러나 그들은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27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가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
름으로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28 그는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29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인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돌아다녔더라.
30 형제들이 이를 알고 그를 카이사레아로 데리고 내려
갔다가 타르수스로 보냈다.
31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안정
을 이루고 덕을 쌓았으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32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다에 사는 성도들
에게도 내려갔다.

33 거기서 그는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팔 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고 마비로 병을 앓고 있었
다.
34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네아, 예수 그리스도께
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35 그리하여 리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
고 주님께로 돌아섰다.
36 요파에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여자는 선행과 자선 활동이 많
았습니다.
37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으니, 그들이 여자를
씻긴 후에 윗방에 뉘었더라.
38 룻다가 요파에 가까운 고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거
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
고 자기들에게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오
자 그들은 그를 위층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모든 과
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
을 때 만든 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40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내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를 시체 쪽으로 돌려서 말하였다. 다비다
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떴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41 그러자 베드로는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모아서 그녀가 살아 있
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2 이 일은 요파 온 땅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43 그는 여러 날 요파에 시몬이라는 가죽장이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제 10 장

1 가이사랴에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2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
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항
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3 그는 그날 오후 9 시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
사가 자기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
히 보았습니다.
4 그가 그를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주
님?하고 이르되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자선이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올라왔나이다.
5 이제 요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이름의 시
몬을 청하라.
6 그는 가죽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줄 것이다.
7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던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집
안의 하인 둘과 늘 자기를 섬기던 경건한 군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8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전한 뒤 그들을 요파로
보냈다.
9 이튿날 그들이 여행을 하여 성에 가까이 이르매 베드
로는 오후 여섯 시경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더라
10 그는 매우 배고파서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
는 동안에 그는 황홀경에 빠져서
11 또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네 모서리가 엮어진 큰 보자기
같았고 땅에 늘어져 있었다.
12 그 안에는 땅의 모든 네발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
과 공중의 새가 있었습니다.
13 그러자 그에게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
아먹어라."
14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
된 것과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15 그러자 두 번째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하나님께
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
려졌습니다.
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 의
심하고 있을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 있더라.
18 그리고 시몬, 곧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묵고 있는
지 불러 물었습니다.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
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20 그러므로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의심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21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
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22 그들이 말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인 온 족속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
으로부터 당신을 집으로 불러들여 말씀을 들으라는 경
고를 하였습니다.
23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불러서 묵게 하였다. 그리
고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떠났고,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동행하였다.
24 그리고 그들이 카이사레아에 들어간 다음 날, 고넬
리우스는 그들을 기다리며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
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5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26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다. "일
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27 그가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
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2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대
인으로서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방문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부르지 말라고 나에
게 보여 주셨습니다.

29 그러므로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너희
에게 왔노라.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나를 불렀는지 묻
노라.
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 시간까지 금식하
였고 오후 9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니 보라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31 이르되 고넬료야 네 기도가 들렸고 네 자선은 하나
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느니라
32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다.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할 것이다.
33 그러므로 나는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고, 당신
이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
든 것을 듣습니다.
34 그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참으로 하
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깨달았노라
35 그러나 어떤 민족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니라.
3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파하시는 것이니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니라)
37 내가 이르노니 그 말씀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
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을 너희
가 아느니라
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
으셨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
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39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
든 일의 증인입니다.그들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았지
만,
40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41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
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와 함께 먹
고 마신 우리에게도 그러하였느니라.
42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
께서 자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하신 분
임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사이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45 할례받은 신자들 중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
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
46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
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47 성령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받은 이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는가?
4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11 장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자들
이 그와 논쟁하니
3 이르시되 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하시고
4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 일을 되뇌며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5 나는 요파 성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경에 빠져 환
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네 모서리가 묶인 큰 보자
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6 내가 눈을 고정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있더
라.
7 그리고 나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
성을 들었습니다.
8 그러나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
되고 더러운 것은 어느 때나 내 입에 들어온 적이 없습
니다."
9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10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된 후, 모두 다시 하늘로 올라갔
습니다.
11 그러자 보라, 곧 내가 있는 집에 세 사람이 이미 왔으
니, 그들은 카이사레아에서 나에게로 파견된 사람들이
었다.
12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
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게다가 이 여섯 형제가 나
와 함께 갔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13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 천사가 서서 "요파로 사람들
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이름의 시몬을 불러오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14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전할 자
가 누구이겠느냐?
15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
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16 그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주님께
서 말씀하신 "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
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
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
여 생명에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니라
19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파하
였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 사람들도 있었
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21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
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2 이 일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전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안티오크까지 보내었다.
23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 모두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습니다.
24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25 그 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떠났다.
26 그가 그를 만나자 그는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일년 내내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27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28 그러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9 그러자 제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품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30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제 12 장

1 그 무렵 헤롯 왕은 손을 뻗쳐 교회 중의 어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2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3 그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데려가려고 더 나아갔다. (그때는 무교절이었다.)
4 베드로는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 4 명씩 네 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며, 부활절이 지난 뒤에 그를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하였다.
5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였느니라.
6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로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감옥에 빛이 비쳤다. 그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그의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8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띠를 띠고 샌들을 신으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나를 따르라.
9 그는 나가서 그를 따라갔는데, 그것이 천사가 행한 일인 줄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10 그들이 첫째와 둘째 경계를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은 저절로 그들에게 열렸다. 그들은 나가서 한 거리를 지나가자 천사는 곧 그에게서 떠났다.
11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참으로 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해 내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12 베드로는 이 일을 생각해 보고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처녀가 와서 들으러 왔다.
14 그 여자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았지만 기뻐서 문을 열지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섰던 것을 알렸습니다.
15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미쳤어요.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그의 천사입니다.
16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17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를 감옥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18 날이 새자마자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그는 경비병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20 헤롯은 티레와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노여움을 품었지만,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내시 블라스토를 친구로 삼고 평화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지방은 왕의 지방에서 양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1 어느 날 헤롯은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22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치며,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하였다.
23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즉시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히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2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25 바나바와 사울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도 데리고 갔다.

제 13 장

1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키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2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하게 하여라."
3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얹은 뒤 그들을 돌려보냈다.
4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로 떠났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5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들은 또한 요한을 사역자로 두었다.

6 그들이 섬을 지나 바보에 이르러서 어떤 마술사를 만
났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요 유대인이요 이름은 바예수
라
7 그는 그 나라의 총독 세르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신중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8 그러나 마법사 엘리마(그의 이름의 뜻이 이러하니라)
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
고 애썼더라.
9 그때에 사울(바울이라고도 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니
10 이르되 모든 교활함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고, 네가 눈이 멀어
서 한 계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
개와 어둠이 그에게 덮쳐들었고, 그는 손을 잡고 인도
할 사람을 찾아다녔다.
12 그러자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13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페르가에 이르렀고, 요한도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
렘으로 돌아갔다.
14 그러나 그들은 페르가를 떠나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씀이
있거든 전하라 하니라
16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였다. "이스
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
시오."
17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
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때 그 백성
을 높이셨으며, 높은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해 내
셨습니다.
18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그들의 행위를
참았습니다.
19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한 뒤에 제비를
뽑아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0 그 후에 그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 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습니다.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원하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
느니라.
2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서는 다윗을 폐하시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여호
와께서는 다윗에게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
들 다윗을 만났노라.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로다.
23 이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이스라
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를 일으키셨느니라
24 그가 오기에 앞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25 요한이 그의 길을 마치자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가 아니다.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발에서 신
을 벗길 자격이 없다."
26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
이 보내졌습니다.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은 예수를 알
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혀지는 선지자들의 말씀도 알
지 못하므로, 그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었
느니라.
28 그들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
도에게 그를 죽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9 그리고 그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
더니, 그들은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뉘었습니다.
3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
습니다.
31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
에게 예수께서 여러 날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백성에게
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2 우리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33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자녀
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
가 너를 낳았노라."
3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
셔서 다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베풀겠다."
35 그러므로 그는 다른 시편에서도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36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긴 후에
잠들어 조상들에게 묻혀 썩음을 보았느니라
37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분은 썩음을 보지 않으
셨습니다.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사람을 통하여 죄 사
함을 너희에게 전파함을 알라.
39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다 모세의 율법
으로는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던 모든 일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40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
도록 조심하라.
41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비록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라도 결코 믿지 못할 일이니라.
42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가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
일에도 이 말씀을 전파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43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율법에 입각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바나바와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고 권하였다.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45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46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
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갑니다."
47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여 땅 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8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습니다.
49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 전역에 퍼졌습니다.
50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존귀한 여인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방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51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코니온으로 갔다.
52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 14 장

1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게 되었더라.
2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품게 하였다.
3 그러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러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하였고 주께서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으며,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4 그러나 그 성읍의 무리는 나뉘어서 일부는 유대인들에게로 가고 일부는 사도들에게로 가더라.
5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공격을 가하였을 때,
6 그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성읍인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주변 지방으로 도망하였다.
7 그들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8 그런데 리스트라에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그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를 주목하며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더라
10 큰 소리로 말하였다. "너의 발로 똑바로 서라." 그러자 그는 뛰어서 걸었다.
11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12 그들은 바나바를 주피터라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르쿠리우스라 불렀다.
13 그러자 그들의 성읍 앞에 있던 유피테르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14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달려가서 소리 질렀느니라
15 이르되, 선생님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정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런 허무한 것에서 돌이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함이라.
16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모든 민족이 제각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17 그러나 그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행하시되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며 우리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느니라.
18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로 백성들을 간신히 제지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9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20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21 그들이 그 성읍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삼은 후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느니라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3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24 그들은 피시디아를 다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25 그들이 베르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26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안티오크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28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제 15 장

1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니라
2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돌과 논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 몇몇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기로 결정하였다.
3 그들은 교회의 인도를 받아 여행을 떠났는데,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개에 관해 전파하였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4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5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6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7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
르되 형제들이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택하사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
씀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아느니라.
8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
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9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
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러면 이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
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
우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12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히 서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
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13 그들이 잠잠히 있은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14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찾아오
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신
일을 전하였습니다.
15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같으니 기록된 바와 같으니
라
16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세우리라
17 이는 남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내 이름으로 불리
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18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분의 모든 일
을 알고 계십니다.
19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20 그러나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이는 옛날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율법을 읽음이더라.
22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
로 보내기로 작정하였으니, 곧 형제들 가운데서 우두머
리인 유다 바사바와 실라였다.
23 그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들
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24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사
람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여 너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며 이르되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
였노라.
25 우리는 한마음으로 모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26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
을 걸었던 사람들이다.
27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냈으니 그들도 같
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할 것입니다.
28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 외
에 더 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9 우상에게 드린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을 멀리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면 잘 될 것이다. 잘
지내라.
30 그들이 보내진 후에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모아서
서신을 전하니라.
31 그들은 그것을 읽고 그 위로의 말씀을 기뻐하였습니
다.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
면하며 굳게 하였더라.
33 그들이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사도들에게로 돌아가는 허락을 받았다.
34 그러나 실라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
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
니다.
36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님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37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도 데리고 가기로 결
심하였다.
38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
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39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갈라섰
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
다.
40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형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한 추천을 받고 떠났다.
41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굳
건하게 하였다.

제 16 장

1 그때에 예수께서 데르베와 리스트라에 이르시니 거
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는 유대인 여자
로서 믿는 여자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더
라.
2 이는 리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소문이 들린 일이었습니다.
3 바울은 그와 함께 떠나고자 하였고 그 지역에 있는 유
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들
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
니다.
4 그들이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들과 장로들이 정한 지켜야 할 법령들을 그들에게 전하
였다.
5 그리하여 여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6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녀본 후
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으
시니
7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
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8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9 그런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
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
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10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
나려고 노력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
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11 그러므로 우리는 트로아스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
기아로 바로 갔다가 이튿날 네압볼리에 도착하였습니
다.
12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
의 주요 도시이며, 우리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13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가 드려지는 강가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4 그런데 티아티라 성 출신으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께
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
였습니다.
15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녀는 우리에게 간청하여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주님께 충실하다고 판단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강요
했습니다.
16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술의 영이 들린 어떤
여자아이가 우리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주
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17 그 사람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지르며 이르
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라 하더라.
18 그리고 그녀는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
나 바울은 근심하며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명령
합니다. 그러자 그는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19 그러자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으로 관원
들에게 끌고 갔다.
20 그들을 치안관들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서 우리 성을 심히 혼란스럽게 하느니라
21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는 받을 수도 없고 지
킬 수도 없는 관습을 가르치느니라.
22 그러자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였고, 치
안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23 그들은 그들에게 많은 매질을 한 후에 그들을 감옥
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하
였다.
24 이런 명령을 받고 사도들은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
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습니다.
25 자정이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
하였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26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
들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각 사람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27 그러자 감옥장이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이 열린 것
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
고 하였다.
28 그러나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네 자신을 해
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하니라
29 그러자 그는 등불을 부르며 뛰어 들어와 떨면서 바
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30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32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였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였다.
33 그러자 그는 그날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들의 상처를 씻어 주고, 그와 그의 모든 사람이 즉시 세
례를 받았습니다.
34 그리고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 앞
에 음식을 차려놓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
하였습니다.
35 날이 밝자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36 감옥장이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였다. "장관들이 너
희를 풀어주라고 사람을 보냈으니, 이제 떠나 평안히
가라."
37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몰래 내쫓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내십시오."
38 그리고 하인들은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였습니
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그들이 로마인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39 그들은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데리고 나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요구하였다.
40 두 사도는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다.

제 17 장

1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
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2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삼 안식
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3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서 다시 살아나셔야 함을 밝히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
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심을 주장하였습니다.
4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
고, 경건한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큰 무리가 있었고, 유
력한 여인들도 적지 않았다.

5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겨서 음탕
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서 온 성읍을 소동
에 빠뜨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하였다.
6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어떤 형제
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소리쳤다. "세상을 뒤
집어 놓은 자들이 여기도 왔습니다."
7 야손이 그를 영접하였느니라. 이들은 다 카이사르의
칙령에 어긋나는 일을 하여 또 다른 왕이 있으니 곧 예
수라 하느니라.
8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백성과 성읍의 관원들을 불안하
게 하였다.
9 그들이 야손과 다른 한 사람에게서 보증을 받은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다.
10 그러자 형제들은 곧바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로 보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11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여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였습니다.
12 그러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헬라인 중
에도 존귀한 여자들과 남자들 중에도 적지 아니한 사람
이 있었더라.
13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도 가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14 그러자 형제들은 곧 바울을 바다로 보내듯 보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렀다.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에게 급히 오라는 명
령을 받고 떠났다.
16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7 그러므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다.
18 그러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
자들이 그를 마주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떠벌
이가 무슨 말을 할까?"하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는 낯선 신들을 전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그가 그들
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19 그들은 그를 붙잡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말하였
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알 수 있
겠소?"
20 네가 우리 귀에 낯선 말을 들려주니, 우리가 그것들
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함이로다.
21 (아테네 사람들과 그 곳에 머물던 외국인들은 다른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나
듣는 데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22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파트라 언덕 가운데 서서 말했
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
서 지나치게 미신적이라고 봅니다.
23 내가 지나가며 너희의 경건한 모습을 보니, 알려지
지 않은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하게 경배하는 자를 내가 너희에
게 알리노라.
24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
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
니하시나니
25 또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
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마치 그분께서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
다.
26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
에 거주하게 하시고, 시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27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 혹시 그를 더듬어 발견
하고자 함이요,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심이니라
28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또
한 여러분의 시인 중에도 "우리가 그분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2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신성을 금이
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0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으셨지
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1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그
가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
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
에게 그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32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
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34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
운데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스
라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제 18 장

1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2 또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폰투스 출신
으로 얼마 전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
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3 그는 그들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헬
라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영에
감동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
거하였다.
6 그들이 반대하고 모독하자 그는 옷을 흔들며 그들에
게 말했다.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
다."

7 바울은 거기서 떠나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
갔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과 꼭 붙어 있었다.
8 그리고 회당의 수장인 그리스보는 온 집안과 함께 주
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9 그 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말하라 잠잠하지 말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라도 너를 대적하여 해
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읍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
다.
11 바울은 그곳에 1 년 6 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2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
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켜 그를 재
판장으로 끌고 가서
13 이르되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도다 하니라
14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이여 만일 무슨 불의나 흉악한 음행이
라면 내가 너희의 말을 참아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15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법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십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6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재판석에서 끌어내었다.
17 그러자 모든 그리스인들이 회당의 수장인 소스데네
스를 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렸습니다. 갈리오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8 그 후에 바울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형제들
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거기서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갔
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그들을 거기에 남겨 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20 그들이 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1 그러나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르되, 나는 반
드시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명절을 지켜야 하리니, 만
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22 바울은 카이사레아에 도착하여 교회에 인사하고 안
티오크로 내려갔다.
23 바울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온 지방을 차례로 돌며 모든 제자를 굳세게
하였다.
24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웅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25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배우고 열렬히 영을 품고 주
님의 일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
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26 그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길
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27 그가 아카이아로 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형제들이 편
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가 거기에 이르자 그는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8 그는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설득하였고,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제 19 장

1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쪽 지방을 지
나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2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은 이후로 성령
을 받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이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3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4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
풀며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 예
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5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
습니다.
6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7 그리고 모든 남자는 열두 명쯤 되었다.
8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삼개월 동안 담대히 말
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논증하고 설득하셨
다.
9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
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은 그들
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 놓고 티란노 학원에서 날
마다 토론하였다.
10 이런 일이 이 년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
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
었습니다.
1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
을 행하셨습니다.
12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질병이 떠나고 악령도 나갔
다.
13 그러자 떠돌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나서서 악령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
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14 유대인이며 제사장들의 수장인 스게와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런 일을 하였다.
15 그러자 악령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 그러자 악령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을 이기고 압도하니, 그들은 벌거벗고 상처를 입은 채
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17 이 일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알려졌고,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닥쳤으며, 주 예수
의 이름은 찬양을 받았습니다.

18 그러자 많은 신자가 와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백하고 드러냈습니다.
19 또 이상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 그들이 그 책들의 값을 계산해 보니 은화 오만 개나 되었다.
20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21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영으로 결심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꼭 보아야 하리라 하니라
22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고, 자신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23 그러자 그 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4 데메트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다이아나를 위해 은으로 신전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25 그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였다. "선생 여러분, 우리가 이 직업으로 재산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26 또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려세우며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음이니라
27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업이 멸시받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아시아와 온 세상이 경배하는 그녀의 위엄도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차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니라
29 그리하여 온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달려갔다.
30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31 그의 친구인 아시아 수장 몇 사람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32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외쳤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대부분은 무슨 일로 모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3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내밀자 군중 속에서 알렉산더를 끌어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손짓을 하며 군중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34 그러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목소리로 약 두 시간 동안 외쳤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35 그러자 서기가 군중을 달래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유피테르로부터 내려온 형상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36 이런 일들은 반대받을 수 없는 일이므로 여러분은 조용히 있어야 하며 경솔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7 너희가 이 사람들을 여기로 끌고 온 것은, 교회를 도둑질한 자도 아니고 너희 여신을 모독한 자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8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은 열려 있고 대표자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도록 하라.
39 그러나 다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40 오늘의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심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 소동에 대하여 우리가 변명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41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회중을 해산시켰다.

제 20 장

1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포옹한 뒤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2 그가 그 지방들을 두루 다니며 많은 권면을 한 후에 그리스에 이르니
3 그리고 거기서 3 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시리아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4 베뢰아 사람 소바더가 그를 따라 아시아로 가니라 데살로니가 사람 중에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고 데르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그리고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5 앞서 가는 이들은 트로아스에서 우리를 위하여 머물렀더라.
6 무교절이 지난 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도착하여 칠 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7 그리고 일요일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모였을 때 바울은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설교하며 자정까지 계속 설교했습니다.
8 그리고 윗방에는 등불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9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앉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하는 동안 그는 졸음에 빠져 삼층에서 떨어져서 일어났습니다.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으며 이르되 떠들지 말라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니라 하니라
11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와서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한 뒤에 떠났다.
12 그들은 그 청년을 살아나게 하여 데려왔고, 그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13 우리는 배에 앞서서 아소스로 항해하여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하고 걸어서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14 그가 아소스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영접하고 미틸레네로 갔습니다.
15 우리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이튿날 키오스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모스에 도착하여 트로길리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밀레투스에 도착했습니다.

16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에
베소를 거쳐 배를 타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
능하다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
니다.
17 그러고 나서 그는 밀레투스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
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18 그들이 그에게 이르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어떠
한 일을 하였는 줄을 아느니라
19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주를 섬기고, 많은 눈
물과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이겨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20 내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
고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가르쳐 주었노라
21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22 이제 보라, 나는 영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
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노라.
23 다만 성령께서 모든 성에서 증거하시어 결박과 환난
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24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에 아무것도 나를 감동시키지
아니하고 나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는 내가 기쁨으로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
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함이니라.
25 이제 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녔던
너희는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모
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함이니라.
27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꺼
리지 아니하였노라.
28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를 주의하여 돌보라.
성령이 너희를 양 떼의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떠난 뒤에도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30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
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
니다.
31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내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눈
물로 각 사람을 권고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음을 기억
하여라.
32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
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세우고 거룩
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줄
수 있습니다.
33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노
라.
34 그렇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나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 주었느니라.
35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었으니, 이같이 수
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알리노라 .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알리노라.
36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37 그들이 다 심히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
니
38 그들이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 대해 가장 슬퍼하며, 그를 배까지 따라갔다.

제 21 장

1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나 배를 탄 후에 곧장 고스로 가
는 항로를 택하였고 그 이튿날 로도에 도착하였으며 거
기에서 파타라로 갔다.
2 그런데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그것
을 타고 떠났다.
3 우리는 키프로스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티레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배
의 짐을 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우리는 제자들을 만나서 일곱 날을 거기에 머물렀습
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그리고 그 날들이 끝나자 우리는 떠나 길을 떠났습니
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데리고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해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6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에 배를 탔고 그들은 다시 집으
로 돌아갔습니다.
7 우리는 티레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도착하여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
냈습니다.
8 그 이튿날 바울의 일행은 떠나 카이사레아에 이르러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9 그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처녀 딸 넷이 있었습니다.
10 우리가 여러 날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에서 아
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습니다.
11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와 같
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고 하였습니
다.
12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13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
여 예루살렘에서 묶일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노라."
14 그러나 그가 설득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15 그 후 우리는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
다.
16 카이사레아의 제자들 중에도 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왔는데, 그들은 키프로스 출신의 나손이라는 옛 제자를
데리고 왔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니라
18 그 다음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
는데,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19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보시거니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는가 다 율법에 열심이 있느니라
21 그리고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
게 모세를 버리고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고 관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렸느니라.
22 그러면 무슨 일이냐? 무리가 모여야 하리니 네가 왔
다는 말을 들을 것임이니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여라. 우리에
게 서원한 사람이 네 명 있으니,
24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하게 하고 그
들과 함께 비용을 지불하여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 대하여 들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
며, 너 자신도 질서 있게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25 이방인 중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는 그들이 우
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와 음
행을 피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기
록하고 결론지었습니다.
26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
신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기간이 끝
나는 것을 알리고 각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칠 때까
지의 기한을 알렸다.
27 일곱 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들이 그를 성전에서 보고 온 백성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었다.
28 소리지르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백성과 율법과 이
곳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요 더욱이 헬라인들을 성전으
로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하더라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며, 바울
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0 그러자 온 성읍이 소동에 휩싸였고, 군중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
들이 곧 닫혔다.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아다닐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스럽다는 소식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전해졌습니
다.
32 곧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갔
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
을 그쳤다.
33 그러자 천부장이 다가와서 그를 잡아 두 개의 쇠사
슬로 묶으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
는지 물었습니다.
34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외쳤습니다. 소란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자, 그는 그를 성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
령했습니다.
35 그가 계단에 다다랐을 때, 군중의 폭력으로 인해 군
인들이 그를 업고 가야 했습니다.
36 그러자 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가며 "그를 없애버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37 바울이 성 안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 그는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대장은 "
당신은 그리스어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38 너는 그 전에 살인자 사천 명을 이끌고 광야로 소동
을 일으키던 이집트인이 아니냐?
39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라는 도시에 사는 유대인이며, 하찮은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
십시오.
40 그가 허락을 내리자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사람들
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22 장

1 형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2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
고 더욱 잠잠하니 그가 이르되)
3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도시인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자랐으며,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온전히 가르침을 받았고,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렇듯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4 나는 이 길을 박해하여 남자와 여자를 다 잡아서 감옥
에 가두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하였습니다.
5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를 증거하니라.나는 그
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
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그곳으로 갔노라.
6 내가 여행을 하여 정오쯤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
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쌌습니
다.
7 내가 땅에 엎드려서 음성이 내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
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
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10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주
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네게 일러 주리라.
11 나는 그 빛의 영광 때문에 볼 수 없게 되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에 들어갔습니
다.
12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이었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3 내게 와서 서서, "형제 사울아, 시력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4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운 자를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15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리라.
16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어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17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는 황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8 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나에 대한 너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9 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든 회당에서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20 당신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흘렸을 때에도 나는 그 곁에 서서 그의 죽음을 찬성하였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21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떠나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만한 자가 아니니라 하니라
23 그들이 소리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뿌렸더니
24 천부장은 그를 성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그를 채찍질하여 심문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를 대하여 그렇게 소리치는지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25 그들이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자 바울은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인을 유죄 판결도 없이 채찍질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다.
26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르되 주의하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라 하니라
27 그러자 대장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말해 보세요, 당신은 로마인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8 그러자 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돈으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29 그러자 그를 심문하던 자들은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묶어 두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30 이튿날 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자 하여 그를 묶은 것을 풀어 주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공의회에 명령하여 바울을 데리고 내려 그들 앞에 세웠다.

제 23 장

1 바울은 공의회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2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3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흰 칠한 담이여, 하느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에 어긋나게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4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기록되었으되 네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6 바울은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소리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내가 심문을 받습니다."
7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무리가 나뉘어졌습니다.
8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둘 다 있다고 고백합니다.
9 그러자 큰 소리가 일어났고, 바리새인 편에서 온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악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고 하니라.
10 큰 분쟁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두려워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억지로 빼앗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11 그 다음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으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2 날이 밝자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모여서 저주를 받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13 이런 음모를 꾸민 사람은 사십 명이 넘었다.
14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큰 저주를 받았나이다 하니라
15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의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그를 내일 당신들에게 데려오라고 전달하여 마치 당신들이 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면 언제든지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17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오너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18 그래서 그는 그를 잡아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을 당신께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당신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9 그러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따로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바울을 내일 의회로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21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사십 명이 넘는 사람이 그를 노리고 숨어 있으니,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서 지금 준비하고 네게서 약속만 기다리고 있느니라.
22 그러자 천부장은 그 청년을 떠나보내며 명령하였다. "네가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23 그리고 그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삼시에 카이사레아로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라.
24 그리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펠릭스에게 무사히 데려갈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25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26 클라우디오 리시아스가 지극히 뛰어난 총독 펠릭스에게 문안드립니다.
27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가 로마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28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내가 그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갔노라.
29 내가 보니 그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로 고발당한 것이지 사형이나 결박을 받을 만한 죄목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30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곧장 당신에게 보냈고 그의 고발자들에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망하는지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1 그러자 군인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붙잡아 밤에 안티파트리로 데려갔다.
32 이튿날 그들은 기병들을 남겨두고 그와 함께 성으로 돌아갔다.
33 그들이 카이사레아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인도하니라.
34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에 속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
35 그는 말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올 때, 나는 네 말을 듣겠다. 그리고 그는 그를 헤롯의 재판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제 24 장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또 테르둘로라는 변증가도 함께 내려왔는데, 그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2 그가 불려 나오매 데르둘로가 그를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 덕분에 큰 평안을 누리고 당신의 섭리로 이 민족에게 매우 합당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3 가장 고귀한 펠릭스님,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자비에 대한 몇 마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5 우리가 이 사람을 발견하였으니 그는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파의 우두머리니라
6 그는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우리는 그를 잡아서 우리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7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큰 폭력으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갔느니라
8 그의 고발자들에게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하니, 당신이 그를 심문함으로써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바울이 총독이 그에게 말씀하라고 손짓하자 대답하였다. "당신이 이 민족의 여러 해 동안 재판장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11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제 열두 날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도 논쟁하거나, 회당이나 성읍에서 백성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14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고백하노니 곧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길에 따라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5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바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16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나 사람들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나니
17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나는 내 민족에게 구호품과 예물을 가져오려고 왔습니다.
18 그러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내가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보았는데,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19 만일 나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 있다면 누가 당신보다 먼저 와서 반대하였어야 하리요.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회 앞에 섰을 때에 내게서 무슨 악한 일을 발견하였느냐고 말할 것이요
21 다만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오늘 너희가 나를 심문하는 것은 오직 이 한 음성 때문이니라."
22 펠릭스는 이 말을 듣고 그 법에 대하여 더욱 확실히 알았으므로 잠시 미루며 이르되 천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 일을 다 알리라 하니라
23 그리고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주며 그의 아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에게 봉사하거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24 며칠 후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들었다.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래의 심판에 관하여 강론하자 펠릭스는 떨며 대답하였다. "이제는 가십시오. 내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26 그는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를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7 그러나 이 년 후에 포르키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방으로 들어왔다.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베풀고자 하여 바울을 묶어 두었다.

제 25 장

1 페스투스가 도에 온 지 사흘 만에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수장들이 바울을 고발하며 간청하였다.
3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여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어 길에서 죽이려고 기다리게 하였더라.
4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5 그러므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고발하십시오."
6 바울은 열흘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가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 그가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원망을 늘어놓았으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8 그는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게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 그러나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이 일로 재판을 받으려느냐?
10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11 내가 범죄한 자이거나 죽음에 합당한 일을 저질렀다면 나는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
12 그러자 페스투스가 공의회와 의논을 마치고 대답하였다. "네가 카이사르에게 호소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갈 것이니라."
13 며칠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르니케가 페스투스에게 문안하러 카이사레아에 왔다.
14 그들이 여러 날 거기에 있은 후에 페스투스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어떤 사람을 갇힌 채로 남겨 두었나이다 하니라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하여 나에게 알려 주어서 그에 대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16 내가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로마인의 법은 피고인이 원고들과 마주하여 자기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그 어떤 사람도 처형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17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에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8 고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하여 고소하였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그런 죄목으로 고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미신과 죽은 예수에 관하여 그에게 몇 가지 의문을 품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확증하였다.
20 나는 이런 질문에 의심이 생겨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21 그러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지켜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2 그러자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3 이튿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큰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심문 장소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이 끌려나왔다.
24 그러자 페스투스가 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과 여기서 모두 나에게 호소하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25 그러나 나는 그가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호소한 것을 보고 그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26 이에 대하여 내 주께 쓸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당신 앞으로, 특히 당신 앞으로 끌고 온 것은, 아그립바 왕이시여, 심문한 후에 쓸 것이 조금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7 죄수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에게 가해진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26 장

1 그러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마." 그러자 바울이 손을 내밀어 스스로 대답했다.
2 아그리파 왕, 나는 오늘 당신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3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곧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았던 때부터의 나의 생활 방식은 모든 유대인이 다 아는 바입니다.
5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6 이제 내가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7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아그립바 왕이여,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8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너희는 어찌하여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느냐?
9 나는 참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거스르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곧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11 그리고 나는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자주 처벌하고, 신성모독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들에 대하여 극도로 화가 나서 낯선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12 그러므로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에 갔는데,
13 왕이여, 정오에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비추고 있었습니다.
14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나는 음성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은 왜냐? 가시를 차는 것도 네게는 힘든 일이구나."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5 내가 물으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말씀하셨다 . 나는 당신이 박해하는 예수입니다.
16 그러나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네가 본 이 일과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17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18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죄 사함과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9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이여, 나는 하늘의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0 그러나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21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22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오늘날까지 이르러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증거하며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르러 이르신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23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야 했으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셔야 했습니다.
24 바울이 자기의 말을 이렇게 말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미쳤구나.
25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페스투스 각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절제된 말씀을 전하십시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시므로 내가 왕 앞에서 담담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일들 중에 하나도 왕께 숨겨진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 아그리파 왕,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것을 압니다.
28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거의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29 바울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구하노니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러한 결박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0 그가 이렇게 말하자 왕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들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31 그들이 물러간 후에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갇힐 만한 짓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32 그러자 아그리파가 페스투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27 장

1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투스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2 우리는 아드라뭇데노 배를 타고 아시아 해안을 거쳐 항해하려고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3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시돈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율리오는 바울을 정중하게 대접하고,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4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여, 바람이 거스르므로 키프로스 섬 아래로 항해하였습니다.
5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한 도시인 미라에 도착했습니다.
6 거기서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7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바람이 우리를 막지 못해서 우리는 살모네 맞은편, 크레타 섬 아래로 항해했습니다.

8 그리고 간신히 그 곳을 지나서 아름다운 항구라 불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근처에는 라세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9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저는 이 항해가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에도 큰 타격과 피해를 입힐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1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선장과 배주인의 말을 더 믿었다.
12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므로, 차라리 거기서 출발하여 어떻게든지 페니케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페니케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13 그런데 남풍이 약하게 불자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 크레타 근처로 항해하였다.
14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리돈이라 불리는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15 배가 바람에 밀려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배를 몰고 가게 두었습니다.
16 그런데 클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지나가면서 우리는 배를 이용하여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17 그들은 그것을 들어올린 후, 보조물을 사용하여 배를 띠고,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떠밀려 갔다.
18 그런데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게 되었고, 이튿날 그들은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19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버렸습니다.
20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적지 않은 폭풍우가 우리에게 덮치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21 그러나 오랫동안 금욕 생활을 한 후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해와 손실을 입었을 것이니라.
22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명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에만 생명이 손실될 뿐입니다.
23 오늘 밤 내 곁에는 내가 속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고 내가 섬기는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24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리니 보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네게 주셨느니라 하니라
25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6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섬에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27 그런데 열네째 날 밤, 우리가 아드리아 해를 떠돌아다니던 중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어떤 지방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습니다.
28 그들이 물을 재어보니 스무 파덤이었다. 조금 더 가서 다시 재보니 열다섯 파덤이었다.
29 그러자 그들은 바위에 부딪힐까 두려워서 선미에서 닻을 네 개 내리고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30 배의 선원들이 배를 바다에 내린 후 배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에 마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려고 하는 듯이 펄럭거렸다.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32 그러자 군인들이 배의 밧줄을 끊어 배를 떨어뜨렸다.
33 날이 새매 바울이 그들에게 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여 이르되 오늘은 너희가 머물러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한 지 열네째 날이니라
3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고기를 먹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35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는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36 그러자 그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져서 고기도 먹었습니다.
37 배에 탄 우리의 인원은 모두 이백칠십육 명이었습니다.
38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
39 날이 밝자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해안이 있는 작은 개울을 발견하였고, 거기에 배를 밀어 넣을 수만 있다면 어떨까 생각하였다.
40 그들이 닻을 올리고 바다에 몸을 맡기고 키줄을 늦추고 메인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41 그런데 두 바다가 합쳐지는 곳에 이르러서 배는 좌초되었다. 앞부분은 박혀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었지만, 뒷부분은 파도의 거센 물결에 깨져 버렸다.
42 그리고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중에 누구라도 헤엄쳐 나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3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고자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44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은 판자 위에, 어떤 사람들은 배의 부서진 조각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제 28 장

1 그들이 도망한 후에야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 그리고 야만인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를 하나하나 맞아주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이다.
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모아 불 위에 놓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어뜯었다.
4 야만인들은 독사가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복수심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5 그리고 그는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도 없었습니다.
6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죽어 쓰러질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켜보다가도 그에게 아무런 해가 없음을 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고 말했다.
7 그 섬의 우두머리인 푸블리우스의 소유지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맞아들여 3 일간 정중하게 묵게 해 주었습니다.
8 그런데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혈루증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9 그러자 그 섬에 질병을 앓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 그들은 또한 우리를 여러 모로 대접하였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에게 실어 주었습니다.
11 석 달 후에 우리는 겨울을 섬에서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상징은 카스토르와 폴룩스였습니다.
12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우리는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13 거기서 우리는 방향을 돌려 레기온에 이르렀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서 우리는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했습니다.
14 우리는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일곱 날을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15 그 곳에서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세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16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에 백부장은 죄수들을 경비대장에게 넘겨 주었으나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다.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습니다.
18 그들은 나를 심문한 후에 죽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을 고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20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보고 너희와 이야기하려고 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음이니라.
21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에서 너에 관하여 편지를 받은 적이 없고, 온 형제들 중에 너에 대하여 해로운 것을 전하거나 말한 사람도 없노라.
22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증거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24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5 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여 떠나갈 때에 바울이 한 마디로 이르되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느니라
26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27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그 귀는 듣는 데 둔하며,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칠까 두려움이니라.
28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임을 너희는 알라.
29 그가 이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떠나가서 서로 큰 논쟁을 벌였다.
30 바울은 자기가 빌린 집에서 온종일 두 해를 지내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31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가르쳤는데, 아무도 그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